

碩士學位請求論文

李箱小說의 人物研究

指導教授 安 成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許 珉 碩

1995年 8月

李箱小說의 人物研究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許 珉 碩



許珉碩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5년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李箱小說의 人物研究¹⁾

許 珉 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연구는 李箱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그리고 욕망구조와 갈등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이상 소설의 새로운 독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작가가 추구한 궁극적인 인간상의 정체를 밝혀내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 소설의 거의 모든 작품에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인물 상호간의 대화적 관계의 틀과 구조를 찾아내어 작가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일관되게 형상화한 인간상을 해석해내는 기본원리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지주회사」, 「날개」, 「逢別記」, 「童骸」, 「幻視記」, 「斷髮」, 「失花」, 「終生記」의 열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조주의와 기호론적 방법을 인용하여 연구한 핵심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1)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등을 통해 드러난 이상 소설의 구조적 특성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대립적 관계구조를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분열된 이중구조와 연결시켜 (환유적 의미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한 인물설정 방식은 李箱의 거의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이상 소설의 인물들이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준거가 되고 있다.

1) 본 논문은 199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2) 인물설정에 방법을 통해 보여준 작가의 주요한 변형기법은 <아내(여인)>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 <나(그)>가 처한 이중적 존재상황 중 반쪽인 핵심적 자아를 나타내는 상징체로 설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인물설정의 방법에 유의하여 인물의 존재양상을 살펴 보면, 「지주회사」, 「날개」, 「逢別記」 등은 자아은폐를 통한 역설적 자기인식으로, 그리고 「童骸」, 「幻視記」, 「斷髮」, 「失花」, 「終生記」 등은 동일성 상실과 소외감의 상징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나(그)>라는 인물은 한결같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주인공이 '剝製된 상태'와 '분열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갈등과 욕망의 양상

1) 작가는 남녀의 대립구조를 통해 작품 속에 단순한 남녀관계로 보이는 표층적 의미와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꿈꾸는 심층적 의미를 지닌 이중구조 속에 개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욕망과 갈등을 은폐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그의 소설에 빈번히 나타나는 남녀의 대립구조는 내적 자아인 <나>가 외적 자아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의 부조화에 갈등하고, 결국 동일성 상실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인공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물의 대립은 비극적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절망적인 상황은 욕망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인공은 종생 결심을 통한 비극적 욕망추구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욕망의 흐름은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분열을 겪는 인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갈등하게 되고 그것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갈등양상은 주인공이 자아통합의 기대감을 버리고 기피해 버리거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출 통로가 막혀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 등이다.

3. 작가가 추구한 인간상

1) 결말부를 통하여 밝혀낸 현실인식에 따른 인물의 갈등과 욕망의 지향점은 「지주회시」, 「날개」에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한 현실 타개 양상으로, 「斷髮」에서는 현실적 자아의 변모된 모습으로 인해 관심을 돌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童骸」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난 후, 현실 수용과 대응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으로, 「幻視記」에서는 <나>와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의 시각 정정을 통하지 않고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고민하는 양상으로 제시된다. 또, 「逢別記」에서는 일치할 수 없는 <나>와 금홍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과정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失花」에서는 현실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비밀로 지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終生記」에서는 왜곡된 현실과 그 확인에서 오는 비극적 기억에서의 탈출 시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로 전이하고 있다.

2) 작가가 인물을 통해 추구한 지향점은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바람직한 차원과 비록,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으로 나타난다.

3) 작가는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비밀스러운 삶 속에 현실의 문제를 은폐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창출했다

4) 이상 소설은 분열되고 '剝製'가 된 현재의 상황에 반발하여 '天才'였던 상황으로의 지향의식을 내보임으로써, 분열된 자아가 조화롭게 통일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작가가 지향한 바람직한 인간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목 차

<國文抄錄>	
I. 서 론	2
가. 연구목적	2
나. 연구사 검토	4
다. 연구방법과 범위	6
II.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10
가. 인물의 설정방법	11
나. 인물의 존재양상	17
1. 자아은폐와 역설적 자기 인식	17
2. 동일성 상실과 극복 시도	26
III. 갈등과 욕망의 양상	38
가. 자아통합의 욕망구조	39
1. 현실 인식과 자아 통합 시도	42
2. 현실 재인식과 탈출욕망	43
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46
1. 관계단절과 자기 인식	49
2. 자아상실과 현실인식	50
3. 절망적 현실과 극복시도	53
IV. 작가가 추구한 인간상	59
V. 결 론	68
* 참고 문헌	71
<ABSTRACT>	

I. 서론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李箱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그리고 욕망구조와 갈등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이상 소설의 새로운 讀法을 모색하고, 나아가 작가가 추구한 궁극적인 인간상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 소설의 거의 모든 작품에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인물 상호간의 대화적 관계의 틀과 구조를 찾아내어 작가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일관되게 형상화한 인간상을 해석해내는 기본원리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상 소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되어져 왔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은 私小說의 성격이 강하여, 흔히 기존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공과 여인의 관계를 작가 이상과 관계를 맺은 실제 여인들과의 관계로 파악하거나, 전기적 요소가 작품해석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아 온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낯설음과 기법상의 파격성 등이 작품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난해하게 여겨지는 이상 소설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작

1) 방법론에 따른 이상문학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규영, 「이상문학의 초의식 심리학」 (현대문학, 1973.9-11월호). <심리학>

김용운, 「이상의 난해성」 (문학사상, 1973. 11월호). <수학>

안성수, 『한국근대단편소설의 플롯 연구 시론』 (중앙대박사학위논문, 1989). <구조주의>- 특히 기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날개」는 작가의 시대현실에 대한 역사주의적, 민족주의적 사상이 '이중적 은폐술'에 의해 감추어진 작품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김승희, 『이상시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91). <라캉의 정신분석이론>

최혜실,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 (민지사, 1992). <건축학>-이상이 건축의 원리를 문학작품 속에 투영해 놓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 입각해 이상의 문학세계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상소설은 남녀의 대립을 통한 대칭구조의 실험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고려원, 1992). <정신분석학>

품세계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소설 속의 인물의 삶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인간상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은 곧 작가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작가가 꿈꾸는 작품의 세계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설의 중심은 바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인물의 삶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 세계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의 행위는 작가가 꿈꾸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실천해 보이는 유의미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여기에 논의의 출발점을 두고 이상 소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남녀 관계의 설정방식에서 작품 해석의 열쇠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양상과 욕망의 실상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상의 정체를 해석해 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자는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지주회시」, 「날개」, 「逢別記」, 「童骸」, 「幻視記」, 「斷髮」, 「失花」, 「終生記」 등 열편의 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의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1)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을 통해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제시한다.

(2) 작중인물은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의 삶은 작가가 현실의 문제의식을 암시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3) 인물의 삶은 욕망구조와 갈등 양상을 통해 구체화되며 그것의 유기적인 탐구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

우선, 연구방법론의 제시에 앞서 기존의 이상 소설 연구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이상 소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를 유형화시켜 보면, ①이상의 전기적 사실과 연관시킨 해석²⁾ ②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접근 시도³⁾ ③기법, 문체 등을 중심으로 한 내재적 연구⁴⁾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상 소설이 보여주는 내용의 파격성과 기법의 특이성에 초점이 놓여진 나머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이러한 연구들은 문학 외적 사실에 치우쳐 작품 자체에 대한 구체적 접근에 소홀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과 작가의 실생활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둘째, 그 결과 이상 소설이 보여주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과 비상식적인 남녀 관계를 작가의 내면심리의 반영으로 보고 한 異常者의 정신세계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기법 등의 연구에 치우친 나머지 이상 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역할과 기능 및 작품간의 대화적 관계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넷째, 앞서의 지적처럼 이상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일이 없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의 소설 해명의 열쇠를 인물 설정으로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이런 입장을 반영한 최근의 연구 성과물로는 김윤식 교수의 다음 저작이 대표적이다.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_____, 『이상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3) 정귀영, “이상문학의 초의식 심리학”, (현대문학, 1973년 7월-9월).

김중은, “李箱의 理想과 異常”, (문학사상, 1973년 7월호).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4) 김중하, “이상소설의 공간성 연구”, 전광용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이재선, “이상문학의 시간의식”,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2).

김정자, “이상소설의 문체”,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1985).

「날개 잃은 증인」⁵⁾은 「날개」에서 <나>와 아내는 치매상태의 의식세계와 일상적 현실을 뜻한다고 보고 이 분열된 두 세계가 결합될 수도 없고, 분열된 채로 평행운동을 할 수도 없는 비극과 고민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나>와 <아내>의 관계설정을 개별적인 작품과 연결시켜 「날개」는 현실에의 회귀를, 「봉별기」는 일상적 현실과의 화해를, 「지주회시」는 일상적 현실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작중 인물 <나>는 일상적인 것과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식세계를 일상적 세계에 중화(융합)시키거나 歸化하지도 못했다고 보았다.

「現代熱과 작품의 실제」⁶⁾는 이상의 시, 소설, 수필을 논하면서 특히 소설에서 '아내의 不貞'이란 제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의 표현이며, 그가 낡은 윤리, 도덕관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날개”와 “처용가”의 거리」⁷⁾는 「날개」와 「처용가」를 비교하면서 「날개」의 아내처럼 중간존재자로서 포용될 수 있는 문이야말로 작품 해석을 살게 하는 것이며,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작품의) 심층의미를 꿰뚫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否定과 生成」⁸⁾에서 이상의 소설은 他者 소유의 불가능성, 타자에게 소유되지 않으려는 <나>의 본능적인 경계와 긴장, 타자와 <나>가 빚어내는 무력감과 비굴감의 표현이라고 파악하면서 타인(여인)에게 작용을 가하는 목적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자아의 卽自化에 있으며 타인은 이 卽自化를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다.

「이상소설연구」⁹⁾는 이상의 소설세계를 작가의 삶, 기법의 문제와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실증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이상의 궁극적인 글쓰기 놀이의 목적은 본래적 자아에서 벗어난 생활 속의 자아와의 싸움이고 「날개」를 비롯한 이상의 문자행위는 여인이라는 맞수와의 바둑시합이고, 그 바둑의 기술이 위트와 패러독스라고 보았다.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¹⁰⁾는 이상이 건축학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한 것이 그의

5) 이어령, “날개를 잃은 증인”, 김용직편, 「李箱」(문학과지성사, 1981).
 6) 김용직, 「現代熱과 작품의 실제」, 김용직편, 앞의 책.
 7) 윤홍로, 「한국문학의 해석학적 연구」(일지사, 1978).
 8) 정명환, “否定과 生成”, 「한국작가와 지성」(문학과 지성사, 1978).
 9) 김윤식, 「이상소설연구」(문학과 비평사, 1988).
 10) 최혜실,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민지사, 1992).

문학에서 '대칭의 원리'로 나타났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소설에서 남녀의 대칭구조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의 소설은 '대칭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여인과의 '私的 體驗'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의 거울 -自意識과 자기모험」¹¹⁾은 소설을 대상으로 한 고찰은 아니나 이상의 경우 <거울 밖의 나>는 본질적 자아와는 다른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거울 속의 나>를 만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낯선 존재가 바로 일상적 자아이고, 이 일상적 자아는 현실의 나이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탈(persona)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이상의 작품은 본래의 나와 현실의 나를 구현해 놓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서 제기된 점들을 고찰해 볼 때, 이상 소설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인물중심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작중인물이 세계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삶의 양상을 통해 이상 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그의 소설은 '여인'이라는 매개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인'의 역할과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 바로소 이상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유의하여 작중인물의 역할과 작품세계의 의미 탐색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지향하고자 한 인간상에 대한 탐구 쪽으로 고찰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다. 연구방법과 범위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李箱小説은 '남녀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간의 '대화적 관계'¹²⁾를 고려하면서 '남

11) 김준오, "이상의 거울-自意識과 자기모험", 김용직·박철희편, 「한국현대시작품론」(문장, 1982).

12) 김육동 편, 「바흐젠과 대화주의」(나남, 1990).

미하일 바흐젠, 이득재 역, 「바흐젠의 소설미학」(열린책들, 1988).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역, 「바흐젠: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까치, 1987).

위의 책들에 의하면 바흐젠의 대화이론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상호텍스트성 또는 間텍스

너관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면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보편적인 인간상의 정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든 소설은 인물을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특히, 한 작가의 일련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이상 소설은 인물 설정에 있어서 각 작품마다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인물중심의 연구는 이상 소설세계의 전체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소설 속의 인물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공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¹³⁾ 그는 소설의 흐름인 플롯을 통해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현해 간다. 그러므로 인물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설 세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중인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욕망을 갖고 바람직한 세계와 삶을 지향하는 독립된 개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의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해석한 인간을 소설 인물로 변형시켜 드러내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작가마다 작품마다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해석한 결과를 소설에서 드러내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¹⁴⁾을 고려해야 한다.

트성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여져 왔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사이의 모든 상호 연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공시적, 통시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데, 크게 ①작품 내의 여러 구성요소의 상호 연관관계를 살피는 작품 내적인 상호텍스트성의 관점과 ②한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나 여러 작가의 작품간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작품 외적인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한 작가의 작품들 사이에서 대화적 관계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자가적 텍스트성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 중, 후자의 관점에서 이상 소설을 작중인물의 상호 연관관계를 통해 연구하고자 했다.

13) Chatman은 서사물의 인물들은 단순한 플롯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서사적인 구축물로서의 인물들은 그 묘사를 위한 용어를 요구하며 심리학, 도덕, 혹은 인간경험과 관련된 분야의 일반적인 어휘를 가지고 이들을 거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허구적 인물의 특성은 실제인간의 특성과는 정반대로, 오직 서사적 구축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Seymour Chatman,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2), pp.143-167.]

14)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파비평사, 1990), pp.84-85.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상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남녀관계를 내적 자아인 남주인공이 자신의 반쪽 분신인 외적 자아에 '여인'을 설정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한다.

첫째, 각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간의 관계 설정방법을 분석하여 전체 텍스트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대화적 요소를 찾고 나아가 그것에 기초를 둔 작품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둘째, 작중인물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양상을 밝혀내어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한 바가 '무엇'¹⁶⁾인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셋째, 앞서 살핀 인물간의 관계방식과 그 존재 양상의 해명을 통해 인물이 드러내는 욕망구조¹⁷⁾를 찾아내고 작중인물의 욕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갈등의 양

15)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1. 김윤식, 「이상소설연구」(문학사상사, 1989),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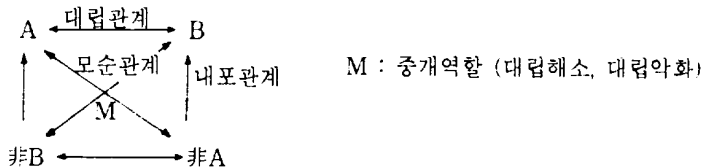
- 그는 李箱의 궁극적인 글쓰기 놀이의 목적은 본래적 자아에서 벗어난 생활 속의 자아와의 싸움이고 「날개」를 비롯한 이상의 문자행위는 여인이라는 맞수와의 바둑시합이고, 그 바둑의 기술이 위트와 패러독스라고 보았다.

2. 김준오, "이상의 거울-自意識과 자기모험", 김용직·박철회편, 「한국현대시작품론」(문장, 1982), p.164.

- 그는 李箱의 경우 <거울 밖의 나>는 본질적 자아와는 다른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거울 속의 나>를 만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낯선 존재가 바로 일상적 자아이고, 이 일상적 자아는 현실의 나이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탈(persona)이라고 보았다.

16) 필자는 '무엇'을 형상화해 내는 도구로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을 원용하고자 한다. 기호학적 구조분석의 원칙은 述話의 논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규칙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고, 본문이 그 자체 안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인석,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과 기호론적 구조분석", 「성서와 언어과학」(성바오로출판사, 1992), pp.168-210.]

이항대립구조에 바탕을 둔 '기호학적 사각형'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특히 이상 소설은 남/녀의 생활 방식과 반응 양식이 두드러지게 대립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의 이항대립구조도는 그 적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갈등의 양상은 작중인물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인간상의 실체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李箱小說을 해석하는 새로운 讀法을 제시하고 특히, 인물설정이 갖는 의미와 작가가 제시한 인간상 해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구조주의와 기호학적인 방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작가의 전기적 요소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묻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¹⁷⁾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그의 소설을 주로 私小說의 관점에서 인식해 온 그동안의 시각을 다소 탈피하고 작품세계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7) 르네 지라르는 욕망은 주인공들이 중개자와의 모방욕구를 통해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욕망의 삼각형”을 제시한다. 그는 주체는 대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객체도 비참하게 된 그 자신과 그를 분리시킬 수가 없기에 이러한 그 자신을 욕망은 미래라는 가면 뒤에 숨겨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욕망의 삼각형의 다양한 형태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구조로 조직화된다. 어떤 소설가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소설의 여타의 측면들과 그밖의 모든 다른 소설들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의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욕망은 소설문학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뻗어 있는 동적인 구조(a dynamic structure)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구조는 항상 변화되고 있다고 했다.[르네 지라르, 김윤식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83), pp.102-110.]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욕망의 체계도를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가는 방향으로 구안해 살펴보고자 한다.



18) 김화영 역,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pp.229-230.

위 책에 의하면 소설의 인물은 소설가가 창조한 허구적 세계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는 장식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창조자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존재하고 느끼고 타인과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지닌 허구적 인간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II.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이상 소설에서 명확한 해석의 틀과 의미를 파악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의 소설 구조가 보여주는 독특한 개성과 난삽함 때문이다. 그의 소설은 다른 작가의 작품구조와 유연관계를 찾기가 힘들다. 이것이 그의 소설에 접근하는 어려움의 일부분을 형성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통일성의 원리 아래 작품들간의 대화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보면, 그의 소설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특히,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일관된 흐름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소설 속의 인물은 주어진 時空 속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자아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능동적 행위자이다. 같은 논리로, 이상 소설의 인물은 자신이 처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내면(본질) 탐구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李箱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현실과의 유리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는 시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속성을 대상 속에 은폐시키고 轉位시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이상 소설의 텍스트를 자율적인 언어구조로 보고 새롭게 읽는 방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그러한 구조에의 탐구를 인물관계 설정방법과 삶의 존재양상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을 이상 소설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로 삼고, 남녀 관계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9) 유성하, 「1930년대 한국심리소설의 기법연구」(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p.31.

가. 인물의 설정방법

李箱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 원인은 인물 자신과 현실과의 부조화, 다시 말해서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현실에서의 탈출과 새 세계의 모색, 그리고 현실과의 단절로 이어지는 자기 만의 세계 구축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두 작품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단절로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내면세계로 들어가는 인물을 찾아 볼 수 있었다.

「休業과 事情」은 이상 소설의 인물이 왜 현실과 대인관계를 떠나 지나치리만큼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해명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설이라 보기엔 사건전개가 단순하고 갈등구조도 허약한 편이다. 주인공 <보산>이 일어나 세수하러 나올 때마다 침을 빨는 SS라는 인물로 인해 모멸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SS의 부인에게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런데 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왜 SS가 침을 빨는가에 대한 근거가 주어져 있지 않아 보산과 SS 사이의 갈등 원인이 애매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인물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고민하면서, 비록 우회적이지만 SS의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려고 한 시도는 <보산>이 제3의 인물인 주변인물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은 그의 여타의 소설과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양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이 주로 외부세계, 혹은 현실과의 접촉 통로의 단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휴업과 사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지도의 암실」로 논의를 확장하면 보다 인물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단절의 상황에서 <그>라는 인물²⁰⁾이 찾은 곳은 끝을 알 수 없는 관념의 미로였다. <그>는 '옷에 대해 귀찮

20) 이상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 특히 남주인공인 경우는, 그 이름 또는 호칭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특성상 동일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휴업과 사정」, 「지도의 암실」에 나타난

은 감정의 버릇'을 시니고 있고,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에 무관심'하려 하고 '글자'의 무용성에 대해 생각하다 '自己'21)를 발견하는 인물이다. 옷, 시간, 글자 등은 인간의 일상적 삶과 그것의 지속, 그리고 삶의 상징적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러한 것에 한결같이 이질감을 갖고, 그 순간을 고통스럽게 여긴다. 그 고통의 시간을 피해 관념의 세계에서 K를 생각하고 거울을 통해 '리상'을 만난다.

두 작품에 두드러진 인물은 표면상 셋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현실의 나(보산)> → <내면의 나(그)>에로의 이동을 거친 후 확인하게 되는, 분열된 현실적 존재의 모습(리상)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질적인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현실에 갈등하는 존재이며, <K>는 내면의 나인 <그>에게 남아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이다. 그리고, <리상>은 "일상적 자아로서의 현실의 나이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탈(persona)"22)이다. 즉, 내면에서 파악해 낸 일상적 자아로서의 외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글을 쓰고 생각하다 보면 분리되는 자신을 느끼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타인과의 관계단절은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강요하고 필연적으로 내면의 '나'에 대한 생각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는 모든 것에 회의하고, 불안해하며, 혼자 있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그>는 내면 깊숙히 들어 가면서도 한편으론 현실과 유리될까 두려워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관계단절로 인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자족하려하지만, 그것 역시 사

남주인공의 행동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산	그
새벽3시에 자고 오후2시에 일어남	새벽4시에 자고 밤10시까지 일에서 벗어남
방안과 변소에서 혼자의 생활과 생각하기를 즐김	日常을 귀찮아 함
SS와의 싸움의 승패를 생각함	무엇인가와 싸우고 싶어함

21) C.G.Jung은 의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나 마음의 분열을 지양하고 하나로 그것을 통합케 하는 요소로 無意識의 중심에 위치하는 나를 '本然의 자기'라고 하면서, 이 본연의 자기는自我的 좁은 울타리를 넘어 무의식적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1986), p.43.]

22) 김준오, "李箱의 거울-自意識과 자기 모험", 앞의 책, p.164.

회적 자아의 처지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중적 사고의 갈등²³⁾ 해소를 위해 <그>는 타인으로서 여자를 생각한다.

이런때에여자가와도 좋은때는그의손에서 피곤한연기가무럭무럭기어
오르는때이다그여자는그고생이자심하여서말랐다는넓적한손바닥으로 그
를투덕투덕두드려 주어서잠자라고하지만그는 여자는가도좋다오지않아
도 좋다고생각하는것이지만이렇게가끔정말좀와주었으면생각도한다²⁴⁾

<그>는 관계가 단절된 현실에서 도피하여 내면세계에서 자유로움을 느껴보려 하지만 그곳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는 내면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여자로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 소설에 현저히 나타나는 여인의 설정은 남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적응 모색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다른 작품 속에서 여전히 <나(그)>라는 주인공과 <아내(여인)>의 뚜렷한 대립관계로 나타난다.

『휴업과 사정』의 <보산>과 SS의 대립은 『지도의 암실』에서는 내면의 나를 탐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하는 '여자'와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지주회시』 등의 작품에서는 그 관계가 남녀의 대립이라는 일관된 구조²⁵⁾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이상 소설의 인물설정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화적 관계구조는 보산 대 타인(SS)의 관계에서 <그>가 내면 속에서 추구하는 자기 대 내면 밖의 현실 속의 여

23)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p.88.

그는 C.G.Jung의 심리학을 인용하면서 의식의 중심으로서 'ego'는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같은 사회적 행동 양식인 Persona를 갖고 있는데, 자신에 맞지 않는 Persona를 가진自我는 그만큼 본연의 자기(self)로 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항상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ego와 self의 분리정도가 심할수록 갈등은 크고, 인간은 이러한 분리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실체를 잘 간파한 작가가 李箱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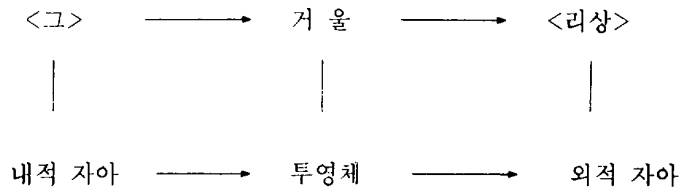
24) 李箱, 『지도의 암실』, 김운식편, 『이상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1991), p.176.

이하 본문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을 밝힘.

25) 남·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상 소설에서 각각의 인물은 현실 적응 정도 면에서 두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 관계를 '남/녀의 대립구조'로 상정하고자 한다.

인으로 바뀌어 지며, 그것이 다시 반복적인 남녀의 대립구조로 변형되어 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상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독법의 틀로서 인물 상호간의 독특한 관계설정 방법인 대화적 구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도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논리로, 「시도의 암살」에 언급된 '거울'의 역할 또한 이상의 다른 소설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거울 밖의 '자아'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상은 그의 작품에 표층과 심층의 이중구조를 설정하고 동일인물을 이분화시켜 배치함으로써 교묘한 아이러니의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²⁶⁾ 여기서 남녀 대립구조로 형상화된 작품들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이상 시에 있어서 거울 이미지는 自意識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승훈 교수는 이러한 자의식을 허위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분열을 의식한다고 보고, 그것을 각각 일상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로 바꾸어 표현했다. 특히 詩 [거울]에서 그 두 자아는 서로 반대되지만 동시에 비슷한 관계로 아이러니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아이러니적 관계로 인해 두 자아는 만날 수 있으나, 구체적 교통이나 합일은 불가능한 상황을 형성한다고 했다. [「이상시연구」 (고려원, 1987), pp.25-37.]

또, 김윤식 교수는 이상문학에 나타나는 거울은 자의식의 장치가 아니라 즉물적인 것이며, 대칭점 설정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상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pp.118-119.]

필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좀 더 관점을 달리하여 작가가 소설 속에 교묘히 은폐한 이중구조를 통해 개인의 갈등을 형상화하는 장치를 찾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인물구분 작품	男[<나(그)>]	女[아내(애인)]
「지주회시」	1.<그>는 굴레짜만한 방에서 말이 없이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감. 2. 게으름을 시험하며 오후4시가 되어서야 눈을 뜬다.	1.<아내>는 카페에 다님 2.손님에게 양되지라고 했다가 발길에 채여 부상당함
「날개」	1.剝奪된 天才 2.<나>는 밤낮으로 잠만 잔다. 3.누구와도 같이 놀지 않는다. 4.돋보기로 불장난을 한다. 5.세수도 하지 않는다.	1.<아내>는 외출한다. 2.내객과 만난다. 3.하루에 두 번 세수한다. 4.<나>를 수면제로 재우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
「逢別記」	1.<나>는 밤낮 잠만 잔다. 2.금홍에게 얻어 맞고 집을 나간다. 3.금홍의 매춘을 위해 방을 제공함	1.금홍은 매춘을 한다. 2.벌어온 돈을 자랑한다. 3.가출과 귀가를 반복한다.
「童骸」	1.<나>는 어두운 방에 누워 자급자족하면 산다. 2.아침, 저녁, 세월의 흐름도 못느낀 채 살아간다.	1.<姪>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 2.돈을 매개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斷髮」	1.<그>는 자신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다. 2.말만 할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1.<소녀>는 자기표현에 당당하다. 2.스스로의 의지로 머리를 자른다.
「幻視記」	1.<나>는 자신의 애정을 밝히지 못한다. 2.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1.<아내>는 승낙없이 외출한다.
「失花」	1.<나>는 자신을 正體를 잃어 버린 혼적이라고 생각한다. 2. 의식, 무의식이 분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과 동경을 오가는 생각에 빠진다.	1.<妍>은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
「終生記」	1.<나>는 방에 누워 終生을 준비한다. 2.하루하루를 유언을 준비하며 보내곤 한다. 3.낮에 잠을 잔다.	1.<貞姬>는 <나>를 속인 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

위 도표의 여덟 작품에 나타난 <나(그)>의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뒤틀린 인물이다. 그리고 '여인'으로 형상화된 <아내(혹은 에인)>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물이지만 그녀 역시 바람직한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다. 즉, 이상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들로서, 부부관계 혹은 그에 가까운 관계 구도 하에서 존재한다. 이때 <나(그)>는 무능력하고 현실에 대한 부적응 상태의 인물로 설정되어 <아내(여인)>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작중인물이 처한 문제의 식이나 문제적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서, 소설의 발화점 이전 상황에서는 그 인물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역설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顛倒된 부부, 혹은 남녀의 역할 관계 속에 한 작가의 창작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표에 나타난 일련의 양상을 바탕으로 할 때, <나(그)>는 '박제된 상태'인 내적 자아의 모습을, 그리고 <아내(여인)>는 <나(그)>의 '박제된 상태'의 원인을 제시하는 환기체로서 외적 자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⁷⁾ 그러한 사실은 가장 밀접하며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어야 할 부부관계가 역할이 전도되고 비정상적 관계로 그려져 있다는 점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워야 할 남녀관계가 노골적으로 폭로·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작중인물의 대립적인 남녀구조의 관계설정 방법은 다음 장에서 인물들의 삶과 존재 양상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27) 기존의 논의에서는 <나(그)>라는 작중 인물을 본래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이분하여 살펴보고 있다.[이어령, "날개를 잃은 증인", 김용직편, 「李箱」(문학과지성사, 1981) / 김윤식, 「이상소설연구」(문학과 비평사, 1988)] 그리고 <아내(여인)>은 독자적 인물 설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속의 '자기'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persona로서의 자아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 소설의 인물 해명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필자는 이상 소설은 <나(그)>라는 인물이 처한 현실과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남/녀 상황 설정의 차이, 적응력의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상 소설은 한 인물의 갈등상을 남/녀의 관계로 치환시켜 나타낸 것이라는 기법적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인물의 존재양상

타인과의 관계 단절은 사회생활의 포기나 정체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작중인물들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존재상황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행위는 언제든지 바람직한 출발점의 상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다. 작중 현실 속에서 <그>는 내면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도의 암실」에서 <그>는 거울을 통해 <리상>을 만난다. 그것은 인상적 '나'를 객체화시킴으로써 객관적 관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적 전략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 문학에서 '거울'은 이중적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단서로서 기능한다. <그>는 거울을 통해 현실적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일상적·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동해」, 「종생기」 등의 작품은 남녀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일방적으로 '나'의 의식을 과다하게 노출시키거나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및 비상식적인 비밀관계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당대의 소설들과 구별되는 독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설 속의 인물을 서술자로서의 작가 이상과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작가 이상이 소설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 중심인물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존재양상을 남녀 인물의 전도된 관계설정 방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자아은폐와 역설적 자기 인식

「날개」의 프롤로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의미심장한 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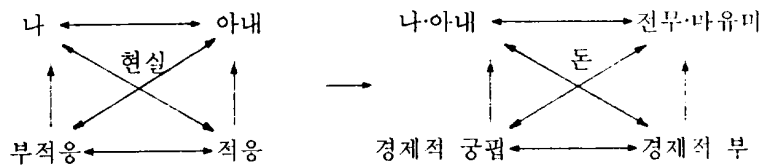
다. 그것은 작가 이상 스스로가 자신의 소설에 대한 독법의 열쇠를 제시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문학이 기존의 문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적 기호인 동시에 기존의 독법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작가의 암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성으로서, 자아의 상황을 은폐시키는 방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기를 폭로하고 인식시키는 독특한 변형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지주회사」, 「날개」, 「봉별기」 등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지주회사」

주인물 <그>가 여인이라는 매개 인물을 통해 발견한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는 '굴뚝짜만한 방'에서 게으름의 한계를 시험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간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서로를 빨아먹는 거미'라고 생각하고, 왜 자신의 아내가 야위어가는지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친구인 뒤편과 함께 갔던 술집에서의 일과 아내가 손님에게 양뎨지라고 했다가 발길에 채여 층계에서 굴러떨어지는 일을 겪은 후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깨닫게 된다.

<그>가 처한 현실은 돈에 의해 왜곡된 현실이다. 즉, <그>는 경제적 수단인 돈을 사이에 두고 양뎨지로 표상되는 가진 자와 거미로 상징되는 못가진 자의 대립구조가 형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그>는 현실과의 불균형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자신이 거미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주인공의 깨달음을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아내의 굴러 떨어짐'이라는 모티프가 작품을 이분화하고 있다. 전반부는 주로 아내에 대한 불만이 형상화되는 <그>의 의식 속의 상황이다. 뭇와 술집에서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아내가 여위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과 그것이 '돈' 때문임을 알게 되나 그 상황에 대한 대응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실제로 '아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는 아내와 자신의 처지가 같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한 불만은 돈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속물들에게 향한다. 여기서 <그>의 의식은 아내와 자신이 같은 처지임을 의식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때, 아내는 다름아닌 현실 속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징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의 모순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고 그 모순에 직면한 아내와 <그>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 = <그>의 외적 자아의 모습'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출 뿐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의 존재양상은 마치 <날개>의 프로로그처럼 '한 발 밖에 들여놓을 수 없는', 그래서 외적 자아로서의 자신과 내적 자아인 자신 그 어느 한 쪽밖에 선택할 수 없는 분열된 인물이 되는 것이다.

2) 「날개」



소설이란 작가가 작중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소설 또한 드러냄의 새로운 한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학작품이 최종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세계는 작가의 의도 뿐만 아니라, 창작 당시 의도하지 않은 미지의 내용까지 넓게 내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문학작품의 세계는 독자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론에 의해 보다 풍부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런 견지에서 이상 소설 독법의 핵

28) 안성수, 「한국근대단편소설의 플롯연구서론」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89), pp.82-83.

심은 「날개」의 프롤로그에 담겨 있다고 본다.

- ① (나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다.
- ② 육신이 흐느적흐느적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 ③ 나는 지성의 극치를 흘깃 줌 들여다 본 일이 있는 일종의 精神分逸者인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하고,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 놓는다.
- ④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 ⑤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 ⑥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禍는 보지 마오.
- ⑦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세상의 여인은 본질적으로 이미 未亡人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프롤로그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사상성을 암시하는데 주어진다”²⁹⁾는 점에서 이상 소설의 프롤로그 또한 인물관계 -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와 아내의 관계 -에 대한 해명의 열쇠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①과 ②는 어법상 모순이다. <나>는 천재이나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육체가 흐느적거릴 정도로 피곤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은 맑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실적 상황에 의해 피곤할 지라도 그것이 내적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며, <나>란 인물이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순어법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지성의 극치를 경험한 여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타적 초월을 시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인은 다름 아닌 내적 자아의 입장에서 파악한 외적 자아의 모습이다. ④, ⑤, ⑥에서는 작품에 대한 독법을 제시하고 있

29) 안성수, 앞의 책, p.88.

다. 그것은 아이러니로 덮여 있고 위조된 것이기에 표층적인 의미로 간단히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㉞은 자신의 세계관을 천명한 것으로 <나>에게 세상은 한 쪽이 비어 있는 '미망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날개」의 프롤로그를 통해 이상 소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여인'이라는 존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또 女人과 生活을 設計하오. 戀愛技法에마져 서먹서먹해진, 知性的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 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一種의 精神奔逸者 말이오. 이런 女人의 반 —— 그것은 온갖 것의 倖이오 —— 만을 領受하는 生活을 設計한다는 말이오. 그런 生活 속에 한 발을 들여놓고 恰似 두 개의 太陽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끼끼거리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人生의 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끝 ㅁㅁ이.30)

<나>는 '割製가 되어 버린 天才'이기에 더 이상 자신의 꿈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一種의 精神奔逸者인 女人'에게 한 발 들여놓은 생활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꿈을 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치환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여인은 현실의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외적 자아로서의 존재이며, <나>는 그 여인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내적 자아로서의 인물인 것이다. 결국 작가는 외적 자아를 표상하는 '현실의 나'를 여인으로 치환하여 나타낸 것이고, 그 모습을 내적 자아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날개」에 드러난 <나>의 삶의 환경은 상징성을 띤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거의 모든 기능이 퇴화하고 감각만이 남은 상태에서 '해가 들지 않고 칙칙하며 옷도 없는' 방에서 살아가는 <나>는 아내를 자신과 대조적인 입장에 놓고 바라본다. <나>의 체험에 의해 드러나는 아내의 세계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내의 반복되는 행위와 돈을 주는 행동은 내적 자아인 <나>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외적 자아를 표상하는 아내의 삶을 확인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며, 결국 <나>의 반복되는 외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외출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

30) 「날개」, p.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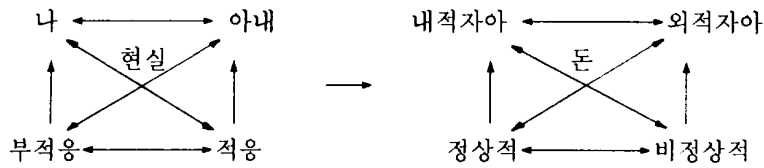
이 '아달린'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나>는 현상태에서 아내와 공존할 수는 있지만, 벗어나거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로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아달린' 사건은 <나>에게 아내의 행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상태를 알려주며, 그러한 깨달음은 자살 시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날개」는 아내를 통해서 돈이라는 경제적 수단에 철저히 얽매인 삶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겉으로는 돈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현실의 돈에 얽매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다.

프롤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아내와 같은 생활에 '한쪽발' 정도만 들여 놓는다. 그러나 아내의 생활로 대변되는 현실은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에 빠져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서 거리를 보며 그 거리 속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음'을 느끼고, 자신과 아내가 '숙명적인 절름발이임'을 깨달으며,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 '방향'한다. 내적 자아인 <나>와 외적 자아인 아내가 화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나>를 '희망과 야심에 가득찼던 박제되기 이전 상태에 대한 번뜩임'으로 이끈다. 하지만 '오늘은 없는 날개'. 방향성을 상실한 박제된 천재의 삶을 확인하는데 그친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멘정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점에서 인공의 날개를 통해 또 한 번의 '飛翔'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현실적 한계의 확인이다. 그러므로 「날개」의 마지막 <나>의 외침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망은 찾기 어렵고, 관념의 의식세계로 빠져드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나>가 과거, 미래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 현실이 과거와 미래를 단절시킨 원인이며, 그 원인의 큰 부분이 아내로 표상되는 왜곡된 생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여인인 아내는 남편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미망인인 것이다. 따라서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나>와 아내는 합치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날개」에 나타난 바를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파악하면 <나>의 부적응과 아내의 적응이라는 괴리는 현실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현실에 부적응을 보이는 <나>라는 인물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보이는 반어적 상황이 나타난다. 그것은 정상적인 <나>의 삶이 현실의 비정상적 상황에 의해 뒤틀려 버리는, '돈'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현실구조에 대한 고발을 내포하고 있다.

3) 「逢別記」

「逢別記」는 <나>와 금홍이라는 여인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 모티프로 <나>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인물의 행동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금홍과의 만남(나의 매춘권장, 금홍의 돈자랑, 귀향길에 금홍에게 돈을 줌)
- ② 금홍과의 생활과 금홍의 가출(부부생활, 금홍의 외출과 함께 비밀이 생김, 금홍의 편의 도모 위한 외출, 금홍의 가출, 금홍에 대한 추문)
- ③ 재회 그리고 이별의 반복(금홍의 귀가, 이별, 만남, 금홍의 외출, 나의 귀향)
- ④ 이별(망명 결심, 동경행 생각, 금홍의 소식, 금홍과 이별을 이야기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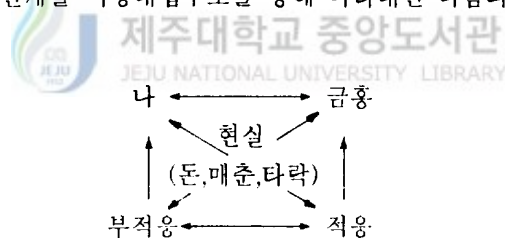
①에서는 <나>의 파행적인 행위에 관계 없이 <나>는 금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나 ②, ③, ④로 전개될수록 관계는 악화되고 결국 이별하게 된다. 만남과 이별을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이유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다. 그리고 인물

간에 필연성이 결여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인물간 관계의 특이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인물들에게 삶의 방편으로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돈이 생긴다. 그러나 '돈'으로 빚어진 기형적 부부관계는 결국 금홍의 잦은 외출과 가출로 이어져 <나>로 하여금 현실에서의 도피를 결심하게 한다. 그것은 금홍이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한 돈과 매춘에 찌든 사회구조에 대한 고발이며, 만남의 과정에서 발견한 현실적 자아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다. 따라서 <나>는 떠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금홍의 존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현실의 모습이며, 삶을 지배하는 돈의 속성이다. 그리고 금홍의 비밀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녀는 무엇때문에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지에 대한 의문의 해소이다. 따라서 <나>는 금홍의 추문을 들려주는 친구들의 취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금홍의 관계를 보통의 남녀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한 비사회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의 특수한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금홍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돈, 매춘, 도덕의 타락으로 얼룩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는 금홍을 통해 삶 속에서의 자신의 삶과 행위를 보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 이 관계를 이항대립구조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로서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금홍이를 매개로 하여 적응하려한 현실은 왜곡된 모습이었다. <나>는 현실 속의 금홍을 보면서, 부적응 상태인 자신을 발견한다. 「봉별기」에서 표면적으로는 금홍만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로 가출과 귀가를 반복한다. <나>는 금홍을 통해 부적응 상태에서 적응으로 전환

을 시도하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거부감으로 인해 ‘동경행’, ‘망명결심’ 등의 현실 탈출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금홍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금홍은 <나>라는 인물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다.

<나>의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보이는 여인은 작품마다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들이고, 어떠한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 의도적으로 회화화된 인물이다. 그러기에 이상 소설의 인물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³¹⁾ 지금까지 살핀 바를 바탕으로 「지주회시」, 「날개」, 「逢別記」에 나타난 여인들의 설정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주회시」	「날개」	「逢別記」
정조상실	정조상실	정조상실
돈벌기 위해 술집에 나감	관계 후 나에게 돈을 줌	매춘으로 받은 돈을 자랑함

주인물인 <나(그)>는 여인의 매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다. 여인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세 작품 속의 여인은 주인공의 상황을 나타내주기 위해 설정된 일종의 현실의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즉, 주인공 <나>는 작중 파트너인 여인을 봄으로써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살펴 본 남녀관계가 나머지 5편의 텍스트에서는 어떠한 관계와 존재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1) 특이하게도 지금까지의 이상의 소설을 논한 글들에서 여인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한 글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주인공(나 또는 그로 나타나는)의 생활 행태의 비정상적인 면에 대해 윤리적 기준에 의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드물다. 이것은 인물들의 삶을 李箱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 삶을 산 실제 인물과 연관지어 파악한 나머지 작중 인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동일성 상실과 극복 시도

<나>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여인의 삶의 모습이 결국 내적 자아인 자신의 외적 자아의 모습이라는 역설적 자기인식에 이른다. 그것이 <나>와 여인의 대립양상으로 나아가면서 동일성 상실을 확인하게 되는 데, 「終生記」, 「童骸」, 「失花」, 「斷髮」, 「幻視記」 등의 작품에 이러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주회시」에서 돈 있는 자에게 구타당해,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깝게 느껴지던 여인이 「날개」, 「봉별기」에 이르면 <나>를 속이고 구타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나(그)>와 가까이 있는 여인들이고 작품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남녀의 대립구조로 파악해 볼 때, 심층적인 상황에서 남녀는 동질적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나(그)>는 현실부적응과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아내(금홍)의 경제 행위인 매춘을 도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외적 자아의 표상인 아내를 통해 현실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내적 자아인 <나>는 외적 자아인 아내를 통해 현실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인식한다. <나>는 왜곡된 현실 속에서 '돈'으로 상징되는 속물들에 대한 비난과 도전을 시도하나, 결국 현실에 순응하거나 방조하는 쪽으로 바뀐다. 즉, 이상 소설에서 '돈'은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는 매개체이다. 그의 소설은 '돈'을 무가치화하고, 돈의 위력을 감소시키려는 <나>란 인물과, 돈의 위력을 체감하며, 그 돈을 위해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여인이라는 두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때, 인물이 살아가는 공간은 '돈'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인간의 모든 것이 돈으로 가치화 되는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여인'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체감하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한 행위는 내적 자아에게서 외적 자아를 분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때, 인물은 자기동일성을 상실하며 현실에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秘密이 없다는 것은 財産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

이다.³²⁾

이상 소설의 인물은 비밀을 말하고 언어유희를 통해 자신의 현실상을 감추려 한다. 비밀이란 역설적으로 '폭로'로 받아들여 진다. 그것은 남녀의 관계가 동질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遺言을 남겨 인생에 흠집을 내지 않겠다고 한 <나>는 「終生記」에서 '쓰레기, 우거지' 같은 내용의 기록을 남기겠다고 한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 폭로이다. 그러면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등에 나타난 양상이 다른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1) 「童骸」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일종의 몽타쥬 기법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에피소드 별로 분리되어 있으나 1인칭 서술자의 감정을 축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 전개된다. 「동해」에는 네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나>, <妊>, <尹>, <T>가 그들이다. <나>를 중심으로 <妊>과 <尹>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대해 <T>가 바라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시간도 세월의 흐름도 못느낀 채, 현실에 무감각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에 비해 <妊>은 양장차림도 하고 단발도 하며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나>는 <妊>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尹>과의 관계도 안다. 그럼에도 <나>는 밤마다 <妊>과 관계를 맺고, 미워하면서도 같이 살아 가며, 동시에 <妊>이 자신의 여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妊>은 이런 <나>를 비웃거나 하듯 <尹>과의 관계를 지속한다. 반면 <나> 역시 <妊>이 '빈손'으로 나갈 때마다 '살림거리'를 상만하러 나가는 것으로 자위하며, 그녀의 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

32) 「失花」, p.357.

여기 十圓있네, 가서 가난한 T군 줄리지 말구 자네가 T군한테 한 잔 사 주게나, 자네 오늘 그 자제 서푼짜리 體面 때문에 꽤 憂鬱해진 모양이니 자네 소위 新婦허구 같이 있다가는 좀 위험할걸, 그러니까 말 일세 그 신부는 내 오늘 같이 키네마루 모시구 갈 테니 안할 말투 잠시 빌리게, 응? 왜 맘에 꺼림칙헐가?³³⁾

<나>라는 인물의 주변은 심하게 왜곡된 상태이고, ‘돈’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지주회사」, 「날개」에 나타난 상황보다 훨씬 비극적이다. 자신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던 <妊>마저도 돈을 주면서 <나>를 밖으로 떠다 미는 상황은 <나>를 ‘무딘히 어지러워서 비적비적하게’ 만든다. 즉, 단순히 아내의 불륜만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는 아내의 생활 공간과 동떨어진 듯한 소외감과 ‘돈’에 떠다밀리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확인한다. 결국, 왜곡된 상황과 경제적 무능이 맞물려 아내마저도 동일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뼈아픈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해」에는 ‘임재는 刺客입니까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자객은 바로 <妊>으로 형상화되며 그 대상은 <나>로 나타나는 데, 이 상황은 나중에 T군이 <나>에게 칼을 쥐어줌으로써 역전된다. 결국 어느 한 쪽에 의해 자객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암시이다. 그러나 <나>도 <妊>도 단지 나쓰미깡을 자르는 데서 끝내고 만다. 자객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으로 <나>에게 제시된다.



「자네, 그중 어려운 外國으로 가게, 가서 비로소 말투 배우구, 또 사람두 처음으로 사귀구 다시 체국체국 살기 시작헐게, 그렇거늘까 자네 自殺을 救할 수 있는 唯一의 方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런 薄情한가? 自殺? 그럼 T군이 눈치를 채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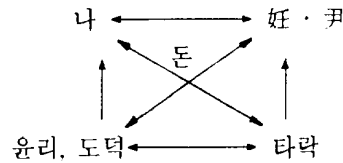
... ..

나는 차츰차츰 이 客 다 빠진 텅빈 空氣 속에 沈沒하는 果實 씨가 내 허리띠에 달린 것 같은 恐怖에 지질리면서 정신이 점점 몽롱해 들어가는 벽두에 T군은 은근히 내 손에 한 자루 서슬 퍼런 칼을 쥐어 준다.³⁴⁾

33) 「童骸」, p.276.

34) 「童骸」, pp.281-282.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T군의 말을 통해 자신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외국으로 가는 것, 자살, <妊>과 <尹>을 찢어 죽이는 것 등의 세 가지 방도 중, '외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적 자아인 <나>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상황을 이항 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는 <妊>과 <尹>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도덕이 무너지버린 왜곡된 상황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 현실을 바람직한 쪽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런 현실에서 뛰어나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선 <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여기에 <나>라는 인물이 처한 현실의 비극이 존재한다. 결국 <나>는 <妊>과 <尹>을 통해 현실 실상을 확인하며, 자신의 외적 자아로서의 비극적 모습을 깨닫게 된다.

2) 「幻視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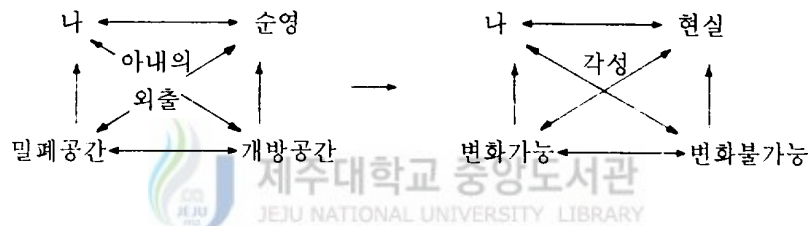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삼각관계를 기본틀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나>를 축으로 하여 아내와 순영이, 순영을 축으로 하여 <나>와 송군이 이중 삼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와 순영의 사이에는 '남북 二千五百里', 송군과 순영의 사이에는 '남북 一萬里'라는 심정적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형성된 원인은 다름아닌 <나>와 <아내>라는 인물에게 있다. 즉, 아내의 외출이 <나>와 순영의 관계를 형성했고, <나>를 매개로 하여 송군과 순영이 맺어졌기에 결국 거리감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나>의 마음 속이다.

<나>는 순영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송군을 통해 대리만족

을 추구할 뿐이다. <나>는 순영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순영에 대한 마음을 아내를 가운데 세움으로써 간접화시키고, 송군을 통해 숨기려 한다. 이처럼 간접화를 통한 은폐시도는 순영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순영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다. <나>는 자신과 아내의 생활을 은폐한 채 순영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송군 쪽으로 우회시켜 투사한다. <나>는 순영을 향한 마음을, 이를 감추려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한 은폐 의도 속에는 강한 드러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순영과 송군의 결합은 <나>에게 '허리가 부러질 희극의 종막'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며, '이번에야말로 동경으로 가버리리라'는 도피 욕구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는 주어진 상황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욕망을 갖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뻘뻘어져 보이는 아내 얼굴을 교정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시각을 교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주어진 현실 상황의 수용이다. 이런 상황을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내의 외출을 계기로 순영을 발견하게 되지만, 순영 역시 아내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즉, 여인들을 통해 알게 된 현실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마음으로만 끝나고 현실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시각을 교정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즉, 아내의 외출은 <나>에게 순영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모습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나>는 그 현실을 교정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오히려 <나>는 그 왜곡된 상황에 맞추어 생활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뿐이다. 결국, <나>는 내적 자아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모순을 발견하나, 그 모순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는, 외적 자아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는다.

3) 「斷髮」

이 작품은 <그(衍)>와 소녀 사이의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애정을 멀리 하는 척 하면서도 반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소녀에 대해 동물적 욕구를 스스로 없이 내뱉는 존재이다. <그>에게 있어 삶은 역설적이게도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소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世俗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반자살을 제안한다. 이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편리한 도박'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속이고 일부러 자기를 속임으로써 본연의 자신을 고귀하게 꾸미고자 한다.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런 생활 중에 출현한 소녀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러나 <그>와 소녀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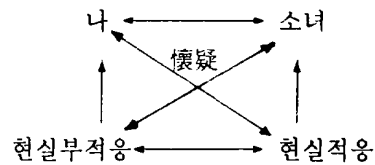
요컨대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사상, 즉 중심이 있는 사상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먹였거든. 知性- 흥 지성이 힘으로 세상을 조종할 수야 얼마든지 있지, 있지만 그게 사람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근본에 있을 힘이 되지 않는 걸 어떡허나?³⁵⁾

<그>는 소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회의를 극복하려 하지만, 자신의 지성마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문제를 소녀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소녀는 <그>에 못지 않게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는 인물이다. 소녀는 <그>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녀는 다른 작품에 보이는 여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부정을 거부하며, <나>에 못지 않은 지성을 갖춘 존재이다.

이렇게 볼 때, 「斷髮」에서 <그>는 속이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적 자아와 분

35) 「斷髮」, p.250.

리된 외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더 이상 같은 곳에 있으면서 한 쪽이 어느 한 쪽에 속해 있는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아임을 소녀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소녀를 통해 본 현실 속의 자아상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바람직한 통합 차원이 아니라 갈등 없이 소녀 쪽으로 즉, 외적 자아 쪽으로 통합될 것 같은 느낌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녀의 '斷髮'은 <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분열된 상태임을 알려 주는 指標이다. 이 상황을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더 이상 소녀를 통해 내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소녀를 통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회의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동반자살의 제안은 필연성을 지니지 못한다. “소녀를 통렬히 조소하면서도 그 소녀에 대한 그리움”³⁶⁾을 내포하고 있는 데서 <그>라는 인물이 현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 「失花」

아홉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妍, C양과 <나>의 관계가 時·空間을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이 작품은, <나>라는 인물이 C양과 妍과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프롤로그가 작품 해독의 열쇠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작품 속에 서술된 秘密이 없다는 것은 財産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 작품의 주제이자, “이상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끈인”³⁷⁾ 동

36) 김윤식, 「이상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p.158.

시에 비밀을 내세운 폭로의 예고이다. 이 작품은 <나>의 의식이 서울과 동경을 교차하면서 각각 妍과 C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현실 공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나>는 서울에서 妍의 부정을 견디다 못해 동경으로 피해 왔으나, 이곳 역시 C양의 파르스름한 얼굴에서 확인되듯이, 서울과 다름없다는 절망을 느낄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서울이나 동경이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 이르고, 자신은 '異國種 강아지'라고 비하하며 이국땅에서의 비애를 토로한다.

「失花」에서 <나>는 세계와의 부조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 속에서 갈 곳 없는 자신을 확인하며, 행위의 당위성을 밝힌다. 그 행위의 하나인 동경으로의 도피행은 비밀을 위장한 자신의 현실적 생활의 폭로로 볼 수 있다.

「첫번 - 말해라」
 「仁川 어느 旅館」
 「그건 안다. 둘째번 - 말해라」
 「.....」
 「말해라」
 「N벨딩 S의 事務室」
 「셋째번 - 말해라」
 「.....」
 「말해라」
 「東小門 밖 飲碧亭」
 「넷째번 - 말해라」
 「.....」
 「말해라」
 「.....」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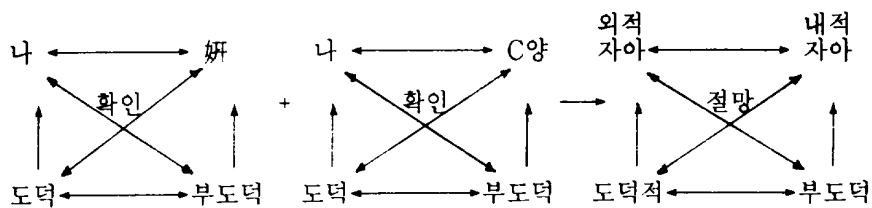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인물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핵심이다. <나>는 자신과 관계된, 가장 개인적이면서 치부에 속하는 내용을 비밀로 가장한 채 폭로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의 확인이며,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현실의 모

37) 김용구,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p.89.

38) 「失花」, p.360.

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현실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다. 서울을 벗어난 동경에서의 체험이 타락한 현실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妍의 생활을 통해 확인한 타락한 현실, 도피처로 택한 동경에서의 재확인,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 속에서의 <나>의 절망을 더욱 크게 한다.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본래의 자신과 현실 속의 <나>의 괴리이며, 그 괴리의 객관적 확인은 바로 '異國種강아지'라는 깨달음이다. 그것은 자아의 동일성 상실에서 오는 자기 소외의 아픔에 대한 확인이다. 이 상황을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부도덕한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의 심화된 타락상을 거듭 확인할 뿐이다.妍과 C양을 통해 <나>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부도덕한 현실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절망적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다. 타인을 통한 현실 확인, 삶의 공간 이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적 자아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절망한다.

5) 「終生記」

이 작품은 <나>의 終生 결심에서 출발한다. <나>는 유서를 준비하며 방에서 홀로 終生을 준비한다. 그런 <나>에게 貞姬에게서 만나자는 편지와 함께 다른 남자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온다. 그러나 貞姬가 자신의 친구인 S와 여전히 만나고 있음을 알고 <나>는 기절한다.

이러한 내용은 李箱의 다른 작품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양상이다. 그런데 프롤로그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반복으로 그치는 내용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프롤로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이 「終生記」를 天下 선비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 위해 썼다.
- ② 나는 유언 나무랑이로 말미암아 인생에 흠집을 내고 만 聖人들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
- ③ 나는 거울 앞에서 면도하다 생채기를 내나 들끓는 여러 <나>와의 충돌 속에서 그 원인을 알아 내지 못한다.
- ④ 나는 어리석은 民衆들이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는 사실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自意識 속에 파묻혀, 게으름 속에서 살아간다.
- ⑥ 나는 終生記에 쓰레기, 우거지의 테잎을 심어 놓으려 한다.

프롤로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목적을 갖고 「終生記」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글을 쓰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해 왔으며, 그 과정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사람이 원숭이 흉내내는 사실'을 안타까워 하며,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세상 모든 것에 게으름을 가장한 채 살아간다. <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왔으며, 그 부적응한 삶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깨닫는다. <나>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있음을 확인하는데, 그것은 곧 자아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한 괴리감에 대한 인식은 현실에 대한 멸시적 태도로 나타난다.

<나>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終生記」에서는 여인이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투영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떨어진 他者인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는 고개 대신에 단장을 꼬덕꼬덕해 보이면서 창졸간에 그만 貞姬

어깨 위에다 손을 얹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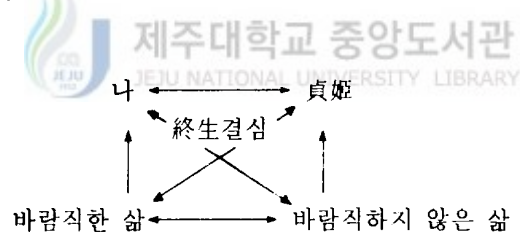
그랬더니 貞姬는 저으기 해괴해 하노라 는 듯이 暫時는 默默하더니

貞姬도 門閥이라든가 或은 簡單히 말해 에티케일이라든가 제법 배워서 짐작하노라고 속삭이는 것이 아닌가.

꿀꺽!

넘어가는 내 지지한 終生, 이렇게도 失手가許해서야 物貨的 全生 涯를 蕩盡해 가면서 死守하여 온 珊瑚篇의 本意가 大體 어디 있느냐? 乃乃 울화가 복받쳐 昏倒할 것 같다.³⁹⁾

내적 자아인 <나>는 외적 자아의 투영으로 여기던 여인에게서 괴리를 느낀다. 그것은 의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것이며 終生 企圖로 이어진다. 더 이상 <나>는 여인과의 일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실상 <나>는 여인을 통해 현실과의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이것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중 어느 한 쪽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인과의 화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貞姬가 <나>에게 포우즈가 아닌 선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의 포우즈의 裏面을 탐지할 줄 아는 남”⁴⁰⁾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한 깨달음은 <나>의 자신에 대한 ‘酒亂’ 같은 自虐 행위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항대립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貞姬를 향한 끊임없는 <나>의 시도는 무산되고, 이로 인한 아픔은 자신을 파괴한다. 그 속에서 <나>는 재차 貞姬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아픔을 겪는다. 그것은 프

39) 「終生記」, p.389.

40) 정명환, 「否定과 生成」, 「한국작가와 지성」 (문학과지성사, 1978), p.149.

물로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죽고 싶은 상황이나 죽을 수 없다는 역설이다. 즉, <나>는 終生할 수 없는 상황에서 終生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貞姬를 통한 현실 확인은 외적 자아로서의 <나>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향한 줄달음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를 갈고, 걸핏하면 까무러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결국 <나>는 「지도의 암실」에서 거울을 통해 발견한 외적 자아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합치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다다랐음을 ‘여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상 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녀의 대립 구조는 작가가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한 비밀스런 창작기법의 차원임을 살펴 보았다. 또, 이러한 작중인물의 설정 방법과 존재양상은 궁극적인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차원의 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궁극적인 의도는 작중인물의 욕망구조와 갈등양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III. 갈등과 욕망의 양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이상 소설은 남녀의 대립구조가 설정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대립구조는 <나(그)>와 여인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혹은 이질성으로 인하여 자기 소외감이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나>라는 인물은 동질성과 이질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이 장의 서술목표가 된다.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한 평가란 그 인물이 수행한 사건과 행동에 대한 검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물과 행위는 이처럼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인물에 대한 평가 없이 소설을 해부할 수 없다⁴¹⁾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현실세계로부터 항상 저항을 받아 인물로 하여금 고통스런 갈등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갈등은 끝이 없는 것이고, 욕망과 현상의 괴리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인물의 존재양상은 갈등과 욕망의 탐색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중인물은 소설의 존재이유가 되며,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 소설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작중인물도 “그 작품의 극적, 주제적 구조 속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의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그 구조 내에서의 그들의 기능에 의해 이해된다.”⁴³⁾ 즉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인물됨을 드러내며, 그 관계 속에서 욕망이 생성되며, 욕망의 추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의 궁극적 지향점과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인물의 정체를 밝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욕망구조와 갈등양상의 파악을 통해 인물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41) C.Brooks · R.P.Warren, 안동림 옮김, 「소설의 분석」(현암사, 1985), p.231.

42)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문화과학비평사, 1990), pp.157-158.

43)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대방출판사, 1983), p.294.

가. 자아통합의 욕망구조

이상 소설의 주인공들은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현실 속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공간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끝인 자살이나 도피에서 출발하고 있다.⁴⁴⁾ 그러기에 그 출발은 새로운 사회, 대인관계, 미래에의 전망을 예비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만의 관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특성을 보여 준다.

“소설가는 작품을 씌으로써 타락한 현실세계를 떠나 수직적 초월을 이룩한다.”⁴⁵⁾ 이상 소설의 <나>는 ‘여인’을 통해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왜곡된 현실구조의 폐해 때문에 탈출과 죽음을 생각한다. 작중인물에게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갈망이라고 한다면, 그 기저에는 어떤 결핍의 심리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때 결핍의 심리구조가 새로운 욕망을 낳는 메카니즘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중 인물의 삶의 진실성과 총체성은 대표적인 특정 성격에 의해서만 탐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인간관계의 총체성 속에서 유기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며, 이때 작중인물의 욕망은 작품 주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건과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⁴⁶⁾ 따라서 욕망구조의 탐색은 갈등구조와 더불어 인간상 탐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 소설의 욕망체계를 갈등구조와 연관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상 소설은 남녀의 대립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욕망체계 또한 주인공인 <나>를 중심으로 그 대칭선상에 존재하는 여인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작품의 논의 순서에 따라 욕망의 체계도를 도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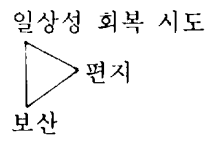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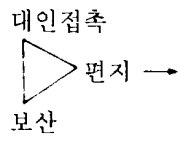
44) 김용구, 「1930년대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식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0), p.112.

- 그는 소설이란 구체적인 시, 공간안에서 특정한 인물의 개별적인 행위를 담은 장르인데, 李箱의 소설은 소설이 끝나는 자리(죽음 혹은 박제)에서 시작되고 있어 폐쇄된 시, 공간 안에서의 유희가 나올 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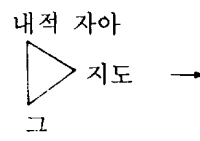
45) 김 현, 「르네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나남, 1991), p.31.

46) 안성수, 「한국근대단편소설의 플롯연구시론」(중앙대박사학위논문, 1989),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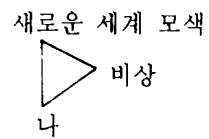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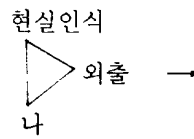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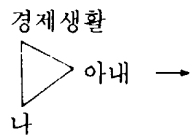
「휴업과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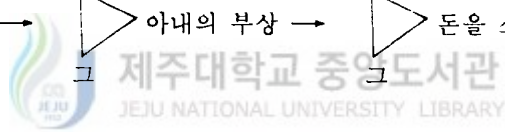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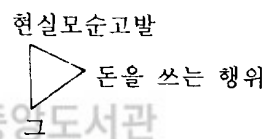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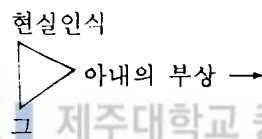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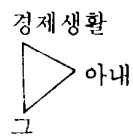
「지도의 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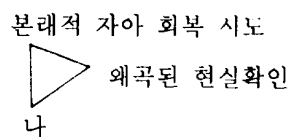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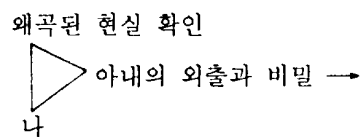
「날개」



「지주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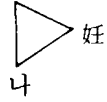


「逢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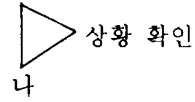
「童骸」

왜곡된 사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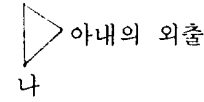
→

현실 탈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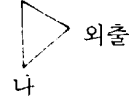


「幻視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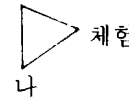
새 세계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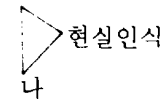
→ 새로운 세계 체험



→ 왜곡된 현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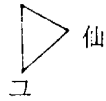


→ 탈출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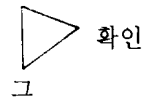
「斷髮」

현실적 자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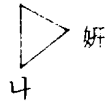
→

관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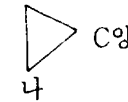
「失花」

현실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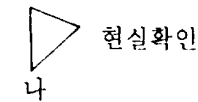
→

현실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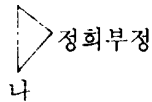
→

현실적 자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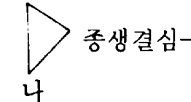
「終生記」

종생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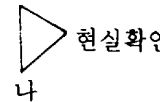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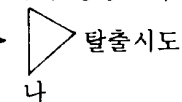
현실확인



→ 탈출시도



→ 비극적 상황 예감



필자는 이미 앞에서 「휴업과 사정」, 「지도의 암실」을 열쇠로 삼아 이상 소설의 인물분석의 실마리가 주인공 <나(그)>로 형상화된 내적 자아와 '아내(여인)'으로 형상화된 외적 자아의 대립적 구조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욕망의 체계도를 조감해 보면, 작가가 드러내려고 한 욕망의 양상은 <나(그)>와 현실의 부조화에서 오는 현실 인식의 과정과 끊임없는 탈출의 시도로 확인되는 극복의 시도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 구체적 양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실 인식과 자아 통합 시도

「휴업과 사정」, 「지도의 암실」에서 <보산>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일상성 회복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자신을 밀폐된 방으로 밀어 놓고 의식세계 탐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상세계로의 회귀를 전제한 탐구이기에 <그>는 의식세계와 일상세계 사이의 순환을 반복한다. 순환의 연속 가운데서 <그>는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날개」, 「지주회사」, 「봉별기」의 욕망표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날개」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나>는 아내에 의지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부부관계로 설정된 <나>와 아내는 부부로 보기에는 너무도 파행적인 삶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 삶은 철저히 차단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라는 인물이 드러내는 권태를 동반한 유희 행위는 그러한 공간 속의 삶에 대한 부정 행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밖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 행위로 읽혀질 수도 있다. 철저한 기만과 유아적 유희행위는 그래서 <나>의 외출로 이어지는 현실인식, 飛翔시도가 가져오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색으로 나타난다. <나>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지주회사」의 <그> 역시 아내에 얽혀 생활을 영위해 가는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아내의 부상을 계기로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돈으로 얼룩진 현실의 모순을 깨닫는다. <그>는 현실의 모순을 잉태시

킨 것이 돈임을 밝히며, 돈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봉별기」에서 <나>의 욕망은 금홍의 매춘과 비밀이라는 과정을 거쳐 왜곡된 현실의 확인 과정에서 표출된다. 여기서 아내의 매춘과 그로 인해 생기는 비밀은 <나>에게 있어서 공개된 사실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띤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비밀, 매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현실적 모순의 확인이다. <나>는 아내를 통해 현실의 왜곡된 모습을 깨닫고 탈출을 시도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면서 망명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행을 말하면서 현실의 탈출을 통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상태를 벗어나 자아의 통합을 시도한다.

하지만 자아 통합을 위한 탈출시도는 금홍이라는 여인의 행위와 연관되어져 드러난다. 탈출을 결심한 후 '초췌한 금홍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 생에서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 처한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금홍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나>의 탈출 시도는 그런 확인으로 인한 깨달음 후에 오는 현실의 절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개」, 「지주회시」, 「봉별기」에 나타난 욕망구조는 갈등과 맞물려 있으며, 욕망 역시 표층 구조 속에 심층 구조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그)>와 아내(금홍)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대립된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이나, 그 이면에는 돈으로 상징되는 왜곡된 경제 구조 하에 놓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한 확인은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고,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며, 본질적 삶을 되찾고자 하는 <나(그)>의 노력으로 각각 형상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욕망 구조가 다른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현실 재인식과 탈출욕망

「날개」 등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자아 통합의 시도 양상은 「동해」, 「환시기」, 「단발」, 「실화」, 「종생기」 등의 작품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현실의 재인식으로, 지속적인 탈출 욕구로 드러난다.

「동해」는 <나>가 妊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상황을 깨닫는 과정을 일상적 남녀 관계와는 거리가 먼 구조로 설정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을 상실한 <나>와 ‘돈’이라는 경제수단에 얽매어 살아가는 ‘妊’의 극명한 차이를 통해 현실 상황에 따른 양극단의 대응 양상이 확인된다. 그 극단의 차이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는 살인도 자살도 결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겁함에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 눈물은 ‘T군이 권한 外國행’을 받아 들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수용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의 확인에 이은 출구를 모색하는 행위는 「단발」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단발」에서 <그>는 仙에게 동반자살을 ‘도박’처럼 제안한다. 그러나 그 제안은 애초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 제안이며, 결국 <그>는 仙의 斷髮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용기를 느끼고 소녀와의 ‘시합’을 포기한다. 이렇게 볼 때, 「동해」, 「단발」은 <나(그)>가 妊·仙을 통해 현실과 그 속에 처한 자신을 확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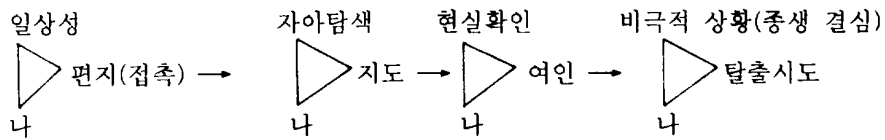
妊·仙은 <나(그)>가 지향하는 인물이 아니라 상황 인식을 드러내는 통로로써 설정한 상징체이다. 그것은 타인을 통하여 현실 속의 자기를 확인하려는 욕망의 표출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욕망의 좌절은 탈출의 권유와 관심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즉, <나(그)>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관심의 분산과 초점 흐리기로 가려놓고 있다. 이런 욕망의 은폐는 「幻視記」, 「失花」에서도 두드러진다.

「환시기」에서 <나>는 아내의 외출을 계기로 순영과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을 계기로 외출을 통해 새 세계를 체험한다. 그 체험이 <나>가 처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더 이상 못한 짓을 마감하고 이번에는야말로’ 동경행을 통한 탈출을 결심한다. 「실화」에서는 <나>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妊과 C양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 외적 자아의 실상을 확인한다.

욕망 표출의 결과를 볼 때, 이상 소설은 단순히 남녀의 애정 문제라기 보다는 남녀관계를 상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인공이 처한 현실상황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네 작품은 작가가 <나(그) —▶ 여인 —▶ 현실과 악>이라는 뚜렷한 구조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주인공의 궁극적 욕망의 지향점이

현실의 확인에서 자신의 위치 확인, 그리고 탈출로 이어지는 일반화된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⁷⁾

앞서 살핀 작품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지향점은 「終生記」라는 작품에 이르러 그 집합점을 형성한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모든 욕망이 삶에서 나온다고 볼 때, 결국 이 작품은 그 끝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종생기」에서 <나>는 여인의 不貞을 계기로 종생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자신과 여인,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현실의 확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인이라는 매개항을 통해 현실을 확인하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예감한 것은 비극적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바탕을 두고 이상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체계도를 통합하여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휴업과 사정」에서 「종생기」로 이어지는 흐름에 나타난 욕망의 흐름은 결국 내적 자아인 <나>의 현실확인 과정이며, 이를 수 없는 탈출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상 소설에서 인물의 행위는 파행적이고 일상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힘으로는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일방적인 <나>의 노골적인 폭로, 유아적 유희, 삶의 의미를 상실한 권태로 형상화된 것이며, 여인은 상대적으로 <나>의 상황을 드러내는 배경적 요소에 머무른다.

여인은 독자적 인물이 아닌 <나>의 처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나>는 어디서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 몸부림을 나타낼 뿐이다. 절망적 상황, 욕망의 좌절은 그 끝인

47) 물론 「단발」은 '관심분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지만 그것 역시 탈출이라는 욕망의 궁극적 지향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종생결심으로 나아간다. <나>에게는 탈출의 통로는 없고 오로지 절망만이 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 절망과의 부딪힘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속한 세계의 부조화를 드러낸다. 그러한 상황은 <나>라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여인이라는 대립적인 타자의 설정을 통하여 현실을 확인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나>는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그 상황 깊은 곳에 갈등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계와의 대립과 부조화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상 소설의 인물은 자신과 세계의 질서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한다. 외적 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인물이 겪는 경험과 반응은 반복되는 권태의 경험과 자기 은폐, 그리고 유희를 통한 삶과 현실의 역설적 폭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에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마치 남의 일인 양 이야기하는 인물의 담화 이면에는 세계와 그 속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관심이 은폐되어 있다.

그러한 역설적 폭로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하고, 세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소설적 개인은 갈등한다. “갈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인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습을 지닐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⁴⁸⁾ 따라서 갈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물의 내면구조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작품들은 인물들의 관계설정과 존재양상 면에서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다. 먼저 주인공 <보산, 나, 그>의 행

48)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p.31.

위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휴업과 사정」에서 타인과의 관계 개선의 시도는 <보산>이 타인에 대한 차이의 인식으로 인해 중단된다. 그리하여 <보산(그)>은 「지도의 암실」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한다.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여 스스로에게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문제해결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타인(여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으로서 불명확한 여인이 「날개」·「지주회시」·「봉별기」·「동해」·「환시기」·「단발」·「실화」·「종생기」에서는 <그(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 또는 그에 가까운 남녀관계'를 형성하는 뚜렷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 작품들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관계가 무너진 상황"⁴⁹⁾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아내의 관계, 아내의 경제적 행위가 부부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매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갈등요인이 내재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도 여인의 행위면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즉, 「날개」·「지주회시」·「봉별기」의 여인은 경제적 수단으로서 매음을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남편의 양해와 도움'을 전제하고 있는 행위로 비춰지며, 그 점에서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통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동해」·「환시기」·「단발」·「실화」·「종생기」의 여인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행동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내적 자아와 분열된 형태인 외적 자아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그)>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내용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휴업과 사정」·「지도의 암실」 / 「날개」·「지주회시」·「봉별기」 / 「동해」·「환시기」·「단발」·「실화」·「종생기」의 세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그 갈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9) 최혜실, 앞의 책, p.156.

<㉞유형>

작 품 명	갈등주체 : 대상	갈 등 내 용
「休業과事情」	보산 : SS	SS가 일방적으로 보산에게 침을 뱉는 상황
「地圖의暗室」	(그의)의식 : 현실	현실에서의 불만에 대한 탈출구를 내면세계에서 모색하고자 하며, 현실과 의식 사이를 오가는 순환적 행위를 반복함.

<㉟유형>

작 품 명	갈등주체 : 대상	갈 등 내 용
「지주회사」	그 : 아내 나·아내:양전무(돈)	아내에 기생해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책과 자학. 나와 아내 모두 돈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에 예속되어 있다는 깨달음과 탈출시도
「날 개」	나 : 아내 나·아내 : 돈	상이한 생활양식과 처지에서 오는 괴리감. 나와 아내는 돈이 지배하는 경제구조에 예속된 존재이며, 그 돈이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음
「逢別記」	나 : 아내 나 : 현실	아내의 잦은 외출과 비밀로 인해 거리감이 형성됨. 나는 아내를 통해 자신을 유혹하는 현실의 실상을 확인함.

<㊱유형>

작 품 명	갈등주체 : 대상	갈 등 내 용
「童 骸」	나 : 妊·尹 (나 : 현실)	妊이 돈을 주며 나를 밖으로 떠미는 상황으로 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 나는 이미 돌이키기엔 늦어버린 현실상황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서의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幻 視 記」	나 : 순영 (나 : 현실)	나는 아내의 외출을 계기로 순영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현실에 접하나 그 현실 역시 자신이 체험한 세계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 도달함.
「斷 髮」	그(衍):소녀(仙) (그 : 현실)	그는 소녀에게서 이미 현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확인함. 그래서 현실극복을 시도하지만 소녀로 대변되는 현실적 자아에 의해 오히려 본래적 자아인 자신이 부적응 상태임을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현실 탈출 뿐이었음.
「失 花」	나 : 妍, C양 (나 : 현실)	妍(서울)과 C양(동경)의 부도덕함을 통해 확인한 현실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분리상태인 절망적 상황의 확인임.
「終 生 記」	나 : 貞姬 (나 : 비극적현실)	정희의 부정 확인과 나의 중생 결심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객관적 확인이며, 그것은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마주치는 비극적 현실의 발견이었음.

이 일련의 갈등 내용을 일별해 보면, 남녀의 대립양상이 주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갈등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작품 이해의 실마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의 등장 인물들은 자기 나름의 존재이유를 지니고 타인과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지닌 허구적 인간 존재이다.”⁵⁰⁾ 따라서 텍스트 속의 상황은 인물이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사물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⁵¹⁾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살핀 작품들에 나타난 인물이 겪는 갈등 양상은 세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관계단절과 자기 인식

「휴업과 사정」, 「지도의 암실」은 대인관계의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작중인물은 대인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하는 수직적 상황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혐오와 일상에 대한 염증으로 싸움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 대결 양상이라기 보다는 우회적 양상인 자신의 의식 세계 탐구로 이어져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싸움을 생각하고 그 방편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나 SS의 事情(득남)으로 인해 좌절된다. 결국 그는 ‘슬픈 마음’을 안고 집(마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출구 모색을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시작한다. 연속되는 일상에 대한 염증, 타인과 자신의 차이 인식 등은 <그>를 더욱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이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탐구로 진행된다. 이것은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기대감 버리기’에 이어지는 ‘기피’의 양상⁵²⁾이며, 탈출이 아니라 내면세계로의 침잠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외로운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보산)>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개인적인 갈등을 안고 있다.

50) 김화영 편역,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pp.229-250.

51)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성바오로출판사, 1992), p.50.

52) 조남현, 앞의 책, p.28.

그는 나더의 말을 인용하면서 갈등상태에 빠진 것을 알려주는 예고지표로 물리적인 공격, 공공연한 舌戰, 은밀한 말로 공격하기, 기대감 버리기, 기피 등의 다섯가지를 들었다.

소설은 문제아적인 개인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현실에서 존재의의를 찾지 못하는 개인이 명증한 자아인식을 향하여 걸어가는 道程이다.⁵³⁾ 그러므로 자의식에 의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도 그 심층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⁵⁴⁾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 소설은 단순히 <나(그)>와 여인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 심층에 <나(그)>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하는 현실이 갈등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단순히 주인공의 개인적인 뉘그러리를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린 자아의 성찰과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 이상 소설은 <나(그)>와 여인과의 동일성 확인과 돈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여인'으로 형상화된 <나(그)>의 외적 자아의 일탈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현실에 처한 개인으로서 <나(그)>는 '아내'라는 매개항을 통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조정한다. 여기서 '아내'는 독자적인 인물이 아닌 <나(그)>의 현실 인식 창구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유형>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나> 또는 <그>의 상대역인 여인들이 한결같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소유한 인물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가장 혼란스러운 관계 설정"⁵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2. 자아상실과 현실인식



<㉠유형>으로 분류한 작품들에 나타난 남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대조되는 삶의 양상이 나타난다.

구분	男		女	
날개	무능력자	밀폐된생활공간	경제적능력보유	개방된생활공간
지주회시	'	폐쇄적생활	'	개방적생활
분별기	'	자학적생활	'	자유분방함

53) 김화영 편역, 앞의 책, p.247.

54) 현길언, 앞의 책, p.161.

55) 최혜실,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민지사, 1992), p.154.

이 대립적 관계의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대립구조가 깨지면서 주인공이 '여인'과 동질성을 느끼기도 한다. 또, 전도된 역할 관계에서 보여 주는 일련의 <나(그)>의 행위는 진정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날개」, 「지주회시」, 「봉별기」는 창부에게 기생해 사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심층에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상황에 대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그)>가 아내의 행위에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남편으로서 <나(그)>는 '아내'에 대해 적개심을 품거나 복수를 계획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 현실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는 현실을 드러내는 쾨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A.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⁵⁶⁾

B. 「이건동화지만세상에는어쨌든이런일도있소. 즉존원이석달만에꼭五百원이되는이야기데꼭되었어야할五百원이그게넉달이었기때문에감쪽같이한푼도없어져버린신기한이야기요. …… 자이런일도있는데일개여급발길로차는것쯤이야판고물이아니고무엇이겠소? …… 자나는가겠소왜들이렇게성가시게구느냐, 나는아무것에도참견하기싫다. 이술을곱게삭이고싶다. 나를보내주시오아내를테리고가겠소. 그리고는다마음대로하시오.⁵⁷⁾

C.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생에서의 永離別이라는 結論으로 밀려갔다. 錦紅이는 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唱歌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역도 꿈결 굵이 굵이 뜨내기 世上 그늘진 心情에 불질러 버려라 云云.⁵⁸⁾

56) 「날개」, p.344.

57) 「지주회시」, p.311.

58) 「逢別記」, p.355.

따라서 A에서의 '탈출'은 아내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 파악한 현실에서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B는 기대해 볼 것 없는 현실에의 환멸을 나타낸 것이다. C는 아내를 통해서 파악한 현실과의 단교 선언이다. 이러한 <깨달음 → 환멸 → 단교선언>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그)>는 현실이 '돈'으로 표상되는 물질 만능의 사회란 점이며, 그 돈이 바로 자신의 현실일탈을 강요하는 실체임을 깨닫는다.

<나(그)>의 갈등 원인은 아내가 아니라, 그 뒤에 은폐되어 있는 물질욕의 표상으로써 '돈'이다. 아내가 주는 돈을 그저 빙어리 저금통 속에 넣기만 하는 삶의 부정적 상태에서, <나(그)>는 '아내의 굴러떨어짐'을 계기로 '돈'의 위력을 깨달으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몸부림친다. 따라서 아내에게 돈 지불을 통해 매춘의 의미를 제거하려는 시도와 亡命 결심 등은 왜곡된 현실 확인과 은폐된 진실의 역설적 폭로로 볼 수 있다.

결국 아내와의 관계망 속에서 느낀 갈등의 근원에는 본질적 삶을 추구하는 <나(그)>를 가로막는 왜곡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왜곡된 현실의 원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돈'이다. 특히 세 작품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매음이 경제적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서 그 점은 뚜렷이 나타난다. 남편이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약속된 모습과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남편이 현실적 삶의 굴레를 초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아내를 통해 투영된 <나>의 외적 자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나(그)>는 對他的, 현실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寄生的 삶과 경제의존적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작중인물이 내적 자아가 외적 자아와 일치된 삶을 추구하려 하나 왜곡된 현실이 보여주는 '돈'의 위력 앞에 무력하다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세계에 대한 갈등의 표출이다.

문학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삶의 자취를 다루게 될 때, 그 일상적 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개인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동인의 하나가 '돈'이다.⁵⁹⁾ 이 '돈'이 지닌 가공할 전염력이 세 작품에서는 역설적으로 돈의 기능에 대한 無視로 나타

59) 권오룡, "식민지사회에서의 삶" (문학과비평, 1987 겨울호), p.248.

난다. 현실성 유무를 떠나 이상 소설의 <나(그)>와 아내는 '돈'을 배제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아내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남편인 <나(그)>는 '돈의 기능에 대한 無知' 假裝, '돈의 가치 평가 절하', '돈을 주고 아내와 관계'를 맺는 왜곡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삶의 공간을 짓누르는 실체에 대한 반응 행위로 볼 수 있다.

<나(그)>에게 아내는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의 냉정한 현실 모습을 표상하는 객관적 상관체이다. 그러기에 일련의 텍스트에서 이들은 부부라고 보기엔 비상식적인 면이 두드러지며, 그것은 "일상 부부처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력 유·무, 물질가치인식 유·무로 구별되는 수직적 위치에 놓여 있음"⁶⁰⁾을 드러낸다. 결국, 「날개」, 「지주회시」, 「봉별기」는 현실 속의 자아의 모습을 통해 내적 자아와 단절을 느끼면서,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세계의 지배구조이며 수단인 '돈'에 예속된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을 표출하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童骸」, 「幻視記」, 「斷髮」, 「失花」, 「終生記」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절망적 현실과 극복시도

<㊸유형>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양상은 주인공이 타인과의 관계 확인을 통한 절망적 현실의 확인에 이은 도피 시도로 드러난다.

이 다섯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주인공의 위선과 허세를 간파할 만큼 지성과 위선적 면모를 동시에 지닌 복잡미묘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행위로서 매음을 하던 여인에서 벗어나 19세기 사회와 역사까지 도입하여 자신의 분방함을 논리화 시키는 존재들이다.⁶¹⁾ 「날개」류의 작품의 여인들은 주인공에게 당시대, 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파악케 해 주는 렌즈였고, 현실에서 자아와의 동질성을 유지한 인물들임에 비해, 「동해」 등에 나타난 여인은 당당함과 비밀만들기를 통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인물

60) 김진석, 「1930년대 한국심리소설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p.94.

61) 최혜실, 앞의 책, p.159.

들로 나타난다. <나(그)>는 여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혼절하기에 이르고, 갈등 차원을 넘어 단절의 위기에 이른다. 그것은 서로의 사이에 비밀이 생겼다는 말로 대신되며, 그 비밀은 비밀을 가장한 노골적인 폭로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럼 尹 以外에?」
「하나」
「예이!」
「정말 하나예요」
「말 마라」
「둘」
「잘한다」
「셋」
「잘한다, 잘한다」
「넷」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⁶²⁾

「첫번 - 말해라」
「仁川 어느 旅館」
「그건 안다. 들췌뵤-말해라」
「.....」
「말해라」
「N벨딩 S의 事務室」
「셋째번 - 말해라」
「.....」
「말해라」
「東小門 밖 飲碧亭」
「넷째번 - 말해라」
「.....」
「말해라」
「.....」⁶³⁾

62) 「童骸」, P.262.

63) 「失花」, P.360.

「失花」의 에필로그는 '사람이 秘密이 없다는 것은 財産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로 시작하며, 끝부분 역시 이 구절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 전개상이 구절은 비밀을 가장한 폭로의 수단임을 드러낸다. <나>는 妍, 姪의 매음 행위에 대해 전혀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드문 일이다. 따라서 <나>의 삶은 역설적으로 변형, 굴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나>의 시각은 여인을 향하고 있으며,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처럼 행동하나 실은 대단한 관심을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라는 인물의 심리는 표면상 철저히 위장되어 있다. 그 위장의 모습이 비밀을 가장한 속임, 권태, 유희 행위의 반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들로 덧씌워진 표면적 갈등의 이면에 <나>의 현실이 왜곡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숨겨져 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문제의 심층에 경제 수단인 '돈'이 자리잡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결과 <나>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분열되어 감을 확인한다. 그래서 <나>는 '자살'과 '동경으로의 도피, 탈출'을 생각하는 것이다.

㉠유형의 「봉별기」에서 나타난 기피양상으로서의 동경으로의 도피가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에 절망하는 <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갈등 속의 현실에서 아내 또는 그에 준하는 여인을 통해 현실 적응 모색을 꾀하던 <나>의 시도의 좌절이며, 그에 이은 도피와 탈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상 소설의 갈등은 은밀한 말로 공격하기, 기대감 버리기, 기피의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과정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분열의 심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째서 나는 하는 족족 이따위 못난 짓밖에 못하나 - 그렇지만 이 허리라 부러질 喜극두 인제 아마 어떻게 종막이 되왔나보다.

잔디 위에 앉아서 별을 찌었다. 피로가 일시에 쏟아지는 것 같다. 눈이 스르르 저절로 감기면서 사지가 노곤해 들어온다. 다리를 축 뺀고 이번에는야말루 동경으로 가버리리라 -64)

나는 十年 긴 - 歲月을 두고 세수할 때마다 自殺를 생각하여 왔다.

64) 「幻視記」, P.293.

그러나 나는 決心하는 方法도 決行하는 方法도 아무 것도 모르는 체다.
65)

좀 우리인 줄은 알면서 놀음하는 세움치고 少女에게 Double
Suicide를 「푸로포즈」하여 본 것이었다.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편리한 賭博이다. 되면 食前에 담배
한뭇음이요, 안 되면 少女를 회피하는 구실을 내외에 선고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⁶⁶⁾

<나>는 동경행과 자살을 번갈아가며 생각한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취한 상태
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幻視이며, '놀음'하는 셈 치는 행위이고 십년 세월을 두고 '생각'
해 온 것으로 실행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자살은 '푸로포즈'하여 본 것으로 필연성이
배제된 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일종의 관념적 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상 소설의 남녀의 대립구조에서 그들은 각각

[男 : ①무능력함 → ②자살생각 → ③동경으로의 도피]

[女 : ①순응적 태도 → ②경계 행위로서의 매음 → ③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같은 변이 과정을 거치는 데, 이러한 관계 설정에서 보면, '女'의 ②, ③
의 행위를 통해 <나>는 현실의 질곡을 깨달았고, 그러한 상황 타개의 시도가 '비밀을
가장한 철저한 폭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의 소설에서는
자살, 도피 시도가 비극적이기보다 희극적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개인화하
고, 특수한 남녀 관계로 치환시켜 버림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일탈적 삶의 모
습으로 비추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심층에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고뇌하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사상, 즉 중심이 있는 사상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먹였거든. 知性- 흥 지성이 힘으로 세상을 조롱할 수야
얼마든지 있지, 있지만 그게 사람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근본에
있을 힘이 되지 않는 걸 어떡허나?⁶⁷⁾

65) 「失花」, P.364.

66) 「斷髮」, P.247.

67) 「斷髮」, p.250.

세상을 '조롱'할 수야 있지만 '리드'할 수 없다는 <나>의 자조어린 말투는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사회와 현실의 모습과 상황을 응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응축된 사회 현실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로 치환되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슬퍼? 응 - 슬플밖에 - 二十世紀를 生活하는 데 十九世紀의 道德性 밖에는 없으니 나는 永遠한 절름발이로다. 슬피야지 - 萬一 슬프지 않다면 - 나는 억지로라도 슬피해야지 - 슬픈 포우즈라도 해 보여야지 - 왜 안 죽느냐고? 헤헝! 내게는 남에게 自殺을 勸誘하는 버릇밖에 없다. 나는 안 죽지. 이따가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衆俗을 속여 주기만 하는 거야, 아 - 그러나 이제는 다 틀렸다. 봐라, 내 팔. 皮骨이 相接. 아야야. 웃어야 할 터인데 筋肉이 없다. 울려야 筋肉이 없다. 나는 形骸다. 나 - 라는 正體는 주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 버렸다. 나는 오직 내 - 痕迹일 따름이다.⁶⁸⁾

비밀을 가장한 속임은 폭로의 모습을 띠면서도 현실의 구체성과는 이어지지 않은 채, <나>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대립이라는 개인적인 갈등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⁹⁾ 이런 구도로 인해 “이상 소설은 권태, 속임과 유희의 순환론적인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⁷⁰⁾ 즉 <나>는 여인을 통해 현실을 보고 문제점을 인



68) 『失花』, pp.368-369.

69) 李箱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삶의 양상을 형상화한 염상섭·채만식의 가족사소설 『三代』, 『太平天下』에 나타난 인물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유지와 번영, 부귀영화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그들은 가족 이외의 존재나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초월적 가치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즉 가정의 안정과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념이나 체제를 고수하는 편이다. 그들에게 있어 가정과 가족이 주된 관심사이자 그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족사소설에서는 역사마저도 가족의 문제 속에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재선, 『한국문학의 해석』 (새문사, 1981),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2);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이런 측면과 연관지어 볼 때, 李箱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극도로 응축시켜 상징화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봉착한 개인의 대응양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 자체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70) 김용구, 『1930년대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식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p.92.

식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思想'을 포기하고 '知性'만을 추구할 때, 개인적 삶은 이룰 수 있을 지 모르나 시대, 사회 현실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다분히 유희적 발상이며 허무의식까지 엿보게 하는 것으로 뚜렷한 지향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의 일단은 모든 문제를 남녀의 단순 대립구조로, 개인 문제로 축소시켜 나타낸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 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 부부관계, 삼각관계의 구조는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힌 한 자아의 비밀을 위장한 폭로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아적 행동, 권태, 유희 행위로 위장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현실 상황인 동시에 자아가 속한 세계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갈등은 무관심과 기피의 인식을 배태하고 있다. 결국 그의 소설은 '감정'조차도 '포우즈'화 하려는 역설이 바로 갈등의 산물임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이상 소설의 욕망의 흐름은 <나>와 대립하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현실과의 부조화라는 갈등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욕망과 갈등의 드러남은 작가가 추구한 궁극적인 인간상 해명을 위한 유용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추구하고자 한 궁극적 인간상을 밝히고자 한다.



IV. 작가가 추구한 인간상

문학 작품을 단순히 작가의 심리적 반영물이라고 보는 것은 작품이 갖는 독자성을 위축시킬 뿐더러,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은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투영이며,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상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소설의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형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며, 그것이 작가의 핵심적 작업”⁷¹⁾이라고 할 때, 앞에서 제기한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그러한 인물들의 행위와 타인과의 관계, 사고 등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인간상의 정체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작가는 항상 자신이 창조한 인물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창작은 작중인물의 존재 방식을 통해 인간과 인생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필자는 이상 소설에 나타난 갈등과 욕망의 양상을 통해서 주인공이 여인을 통해 모순된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상 소설의 남녀 대립 구조 속에서 주인공인 <나> 혹은 <그>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 있고, 또 그러한 이탈행위가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그)>가 폭로하는 현실이 위압적 대상이라면 당연히 은폐의 기법을 쓸 것이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여인은 주인공이 현실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항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이 처한 외적 상황으로서의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소설의 인물은 한결같이 현실에 부적응한 모습,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의 모순을 알고, 그 원인을 탐구하려 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변형된, 특이한 인물을 설정한 데에는

71) 송면, 「소설미학」(문학과지성사, 1985), P.193.

그만한 작가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작가가 살아간 당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시킬 때, 개인의 차원을 떠나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고민과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상황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당대의 지성인들에게 精神分逸을 일으킬 수 있는 억압 상태⁷²⁾임을 알 수 있다. 즉, 식민지 상황이 낳은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을 살아가는 인물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 소설의 인물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궤도에서 이탈한, 변형된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왜곡된 상황에 처한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든 소설 속의 작중 인물들은 각자의 인생을 보여주며 제 나름의 성격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소설가 역시 특정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대적 특성과 공통적 삶의 분모를 지닐 것이다. 그것이 작중인물에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설가가 그의 작중인물을 통해 형상화하여 제시하려 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려 한 인간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에서 <그(보산)>는 외부세계와 접촉하려고 했으나 자신과는 다른 SS의 삶의 양식에 충격을 받고 편지건네기를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는 심적 충격을 입고 자신의 의식세계로 침잠한다. 그와 현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는 어둠 속의 길처럼 찾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그는 공상의 세계 속으로 옮겨가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다. 이런 상태의 지속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히 '분열증 환자'에 불과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가 외부세계를 포기하고 자꾸 자신의 의식 속으로만 침잠하여 가지만, 그 문을 열고 일상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그가 의식세계 속의 체험을 '무시무시한 하루의 하루'로 표현한 것은 현실(일상)

72) 안성수 교수는 李箱의 「날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나>와 <아내>의 인물 설정을 각각 역사적 자아와 역사적 자아를 억압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상 소설의 인물이 왜 한결같이 비일상적이고, 이탈적 행위로 일관하는 인물로 설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유용한 代案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안성수, 앞의 책, pp.81-118.]

의 세계를 떠나 의식 세계에서 체험하는 것 역시 자신이 회구하는 세계가 아님과 동시에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의식 속에서도 순간 순간 일상의 체험들이 떠올라 의식과 혼재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기에 그는 선택을 시도하려 반복적 순환을 하지만 해결의 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가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방향 전환의 의도로 파악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 시도가 형상화된 것이 「날개」, 「종생기」를 비롯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휴업과 사정」의 제3자로서의 타인, 「지도의 암실」의 자기 자신과는 달리 타인이면서도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여인(아내)를 설정하고 있다. 이 여인은 「날개」 등의 작품에서는 표면적 대립 속에 동류의식이 느껴지는 대사회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는 존재로, 「동해」 등의 작품에서는 <나(그)>와 달리 독자적 가치관을 지닌 거리감이 있는 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모든 작품에서 대사회, 대인 관계에 대한 시각은 <나(그)>로 형상화된 인물에 맞추어져 있고, 여인의 시각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상 소설은 <나(그)>가 여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사회를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상 소설에서 형상화하고자 한 핵심적 인물은 <나(그)>로 한정할 수 있다.

이상 소설의 인물은 사회와의 접촉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문을 굳게 닫는다. 이러한 외부세계에 대한 포기가 인물들의 권태, 속임, 유희로 이어진 것이다. <나(그)>는 놀음하는 셈치고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유언까지도 거짓말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그)>라는 인물이 세상 문제를 극소화시켜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의 사회 인식이 자기폐쇄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인식할 수 있다.

인물의 특성을 이루는 권태, 유희, 속임 속에서 <나(그)>는 순환적 생활을 거듭한다. 그 순환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음을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사상, 즉 중심이 있는 사상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먹였거든'⁷³⁾이라는 말로 나타낸다. 여인을 통한 사회적응의 모색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토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내적

자아로서의 <나(그)>와 외적 자아로 형상화된 여인과의 부조화의 확인이다.

결국 이상 소설의 인물은 사상-그것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현실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깨달음이다-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었기에 그에게 전망은 막혀 있다. 그래서 지성으로 세상을 조롱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적 자아인 <나(그)>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자기 탐구를 거쳐 여인을 매개로 하여 외적 자아와의 통합을 통한 자기 회복을 시도하지만, 현실은 이미 '돈'이 지배하고 돈에 의해 삶이 왜곡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한 상황의 지속은 점차 외적 자아를 변화시켜 거리를 만들고 내적 자아와의 단절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상 소설이 보여주는 절망적 상황은 바로 이러한 단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 집약되어 있는 각 작품의 결말부는 그 점을 뚜렷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少女의 孤獨!

혹은 이 시함은 승부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하려나 -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 그것보다도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난 少女의 얼굴 - 몸 전체에서 오는 인상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는 흥미 깊은 우선 誘惑이었다.⁷⁴⁾

내 卑怯을 嘲笑하듯이 다음 순간 내 손에 무엇인가 몽클 뜬듯한 덩어리가 쥐여졌다. 그것은 서먹서먹한 表情의 나쓰미짱. 어느 틈에 T군은 이것을 제 주머니에다 넣고 왔던구.

입에 침이 짜르르 돌기 전에 내 눈에는 식은 껍에 이르는 이슬처럼 방울지지 않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였다.⁷⁵⁾

아까 바른쪽으루 비커스란 소리는 괜헌 소리구 비커스기 전에 자네 시각을 訂正 - 그 때문에 다른 물건이 죄다 바른 쪽으루 비뚤어져 보이드래두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똑바루만 보인다면 시각의 직능은 그만 아닌가 - 그러면 자연 그 블라디오스톡 동경 사이 남북 만리 거리 두 배-제처럼 바삭 맞 다가스구 말 테니.⁷⁶⁾

73) 「전집」, P.250.

74) 「斷髮」, p.253.

75) 「童骸」, p.282.

노한축수-마유미-뭇의자신있는제집-끄나풀-허전한것-수단은없다.
손에 쥐인 20원-마유미-10원은술먹고 10원은팁으로주고그래서마유미가
응하지않거든 예이 양돼지라고그래버리지. 그래도그만이라면20원은그
냥날라가-헛되다-그러나어떠냐공돈이아니냐.전무는한번더아내를층계에
서굴러떨어뜨려주려으나.또20원이다.10원은술값10원은팁. 그래도마유
미가응하지않거든양돼지라고그래주고그래도그만이면20원은그냥뜨는
것이다부탁이다.아내야또한번전무귀에다대이고양돼지그래라.검어차거든
두말말고층계에서내리굴러라.77)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
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78)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생에서의 永離別이라는 結論으
로 밀려갔다. 錦紅이는 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번도 들
은 일이 없는 구슬픈 唱歌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굶이 굶이 뜨내기 世上 그늘진 心情에
불질러 버려라 云云」79)

이날 저녁에 재 부질없는 鄉愁를 꾸짖는 것처럼 C양은 나에게 白
菊 한 송이를 주었는니라. 그러나 午前一時 新宿驛. 품에서 비칠거리는
李箱의 옷깃에 白菊은 간 데 없다. 어느 長靴가 짓밟았을까. 그러나-
검정 外套에 造花를 단. 뎀서 한 사람. 나는 異國種 강아지울씨다. 그러
면 당신께서는 또 무슨 방식과 결상의 秘密을 그 濃化粧 그늘에 지니
고 계시나이까?

사람이-秘密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財産 없는 것보다도 더 가난하
외다 그러! 나를 좀 보시지요?80)

累累한 이 내 昏睡 덕으로 부디 이 내 屍體에서도 生前의 슬픈 記

76) 「幻視記」, p.294.

77) 「지주회시」, p.314.

78) 「날개」, p.344.

79) 「봉별기」, p.355.

80) 「실화」, p.370.

億이 蒼穹 높이 훨훨 날아가나 버렸으면 -

나는, 지금 이런 불쌍한 생각도 한다. 그럼 -

-滿二十六歲와 三十個月을 맞이하는 李箱先生님이여! 허수아비여!

자네는 老翁일세. 무릎이 귀를 넘는 해골일세. 아니,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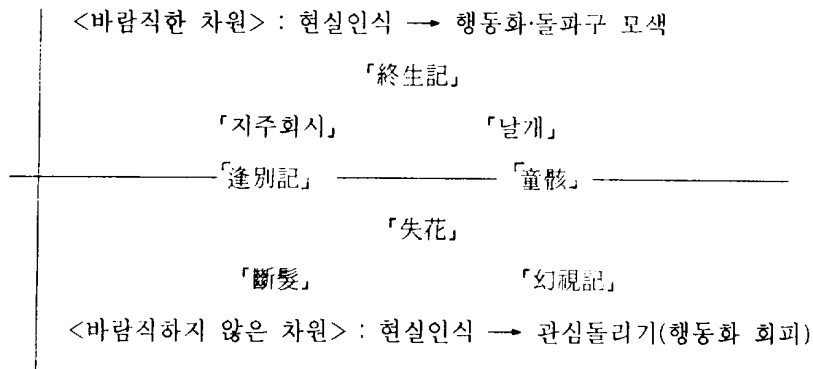
자네는 자네의 運 程上일세. 以上⁸¹⁾

이러한 결말부를 살펴볼 때, 현실인식에 따른 인물의 갈등과 욕망의 지향점은 「지주회시」, 「달개」에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한 현실 타개 양상으로, 「斷髮」에서는 현실적 자아의 변모된 모습으로 인해 관심을 돌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童骸」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난 후, 현실 수용과 대응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으로, 「幻視記」에서는 <나>와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의 시각 정정을 통하지 않고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고민하는 양상으로 제시된다. 또, 「逢別記」에서는 일치할 수 없는 <나>와 금홍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과정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失花」에서는 현실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비밀로 지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終生記」에서는 왜곡된 현실과 그 확인에서 오는 비극적 기억에서의 탈출 시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로 전이한다.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서의 이야기는 시작, 중간, 끝을 갖는다고 할 때, 남녀 대립 구조를 보이는 위의 작품들의 결말부에 드러난 내용은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타인 설정을 통한 현실 인식이라는 논의 선상에서 볼 때, 결국 작품의 배경을 형성하는 현실과 그 속의 삶은 작가의 시각에 의해 굴절되어 은폐된 것이다. 그리고 결말부는 굴절, 변용, 은폐된 상징적 내용의 집합점을 형성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결말부에 나타난 인물의 행위는 작가의 궁극적 지향점을 확인케 하는 指標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지향 의식은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바람직한 차원과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81) 「終生記」, p.397.



이 그림은 작품별로 이상 소설의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욕망의 지향의식을 바람직한 차원과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으로 나누어 나타내 본 것이다. 이상 소설의 인물이 지향하는 바는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 단지 보다 나은 상황에의 지향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은 개인이 처한 현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개인적인 특수한 남녀관계로 은폐시켜 폭로하는 방법으로 형상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작가는 궁극적으로 작품 속에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인물을 설정하고,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소설은 단순히 특이한 인물의 파격적인 삶의 모습을 단순히 노출시킨 것으로 보기 보다는 작가가 고발하고자 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특유의 은폐기법에 의해 상징화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인간상의 실체는 작품의 결말 뒤쪽에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필자는 이상 소설의 인물이 한결같이 타인과의 관계단절, 비밀상성, 경제적 무능력,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顛倒된 상태로 설정된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이전의 온전한 상황으로의 복귀나 지향이라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 소설의 인물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적 인물이라 할 수 있고, 결국 그들은 어떤 해결점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 숲츠에 의하면 인간의 완성은 바람직한 인생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Self)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⁸²⁾ 이상 소설의 인물 역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견지에서 작가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보고, 분열된 자아를 표상하는 남녀 대립구조 설정을 통해 모순된 삶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男과 女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남녀 관계의 부조화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 소설은 일관되게 갈등 관계에 놓인 여인을 매개로 하여 부조화의 관계를 은밀하게 폭로해 보이고 있다. 그의 소설 속에서 <나(그)>라는 인물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여인'으로 상징되는 인물은 그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존재로서 현실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天才'를 '剝製'로 만드는 극단적인 현실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내(여인)>의 존재방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결국 여인(아내)의 삶은 <나(그)>라는 인물의 내적 자아를 억압하는 외적 자아의 상황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 소설에 나타난 <나(그)>와 <아내(여인)>의 인물설정은 결국, 현실에 부적응한 채 지내는 주인공을 내적 자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순된 현실에 적응하여 지내는 여인을 외적 자아로 설정하여, 분열된 부부관계를 통해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나(그)>의 "관계모색 → 현실인식 → 극복시도(탈출, 죽음)"라는 행동양식을 통해 부적응 상태 이전의 나, '박제 이전의 천재'로의 回歸를 지향하지만 결국, 이상적 세계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의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개별적 자아의 차원으로 치환시켜 드러낸 기법적 측면과 작중인물의 극히 비밀스러운 삶 속에 현실의 문제를 위치시킴으로써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자아로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개성적인 인간상을 창조

82) Duane Schultz, 이상우·정종진 역, 「인간성격의 이해」 (중앙적성출판사, 1993), pp.164-165.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소설의 인물은 남녀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분열된 자아의 갈등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상황을 극복하여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문제의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李箱小說 10편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대화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고찰함으로써 텍스트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讀法의 모색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인간상을 탐구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와 기호론적 방법을 원용하여, 인물설정의 방법을 찾아내고, 나아가 인물의 존재양상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욕망구조와 갈등양상의 해명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인간상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제 지금까지의 핵심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중인물의 설정방법과 존재양상

1)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등을 통해 드러난 이상 소설의 구조적 특성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대립적 관계구조를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분열된 이중 구조와 연결시켜 (환유적 의미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한 인물설정 방식은 李箱의 거의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이상 소설의 인물들이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준거가 되고 있다.

2) 인물설정 방법을 통해 보여준 작가의 주요한 변형기법은 <아내(여인)>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 <나(그)>가 처한 분열된 이중적 존재상황 중 반쪽인 현실적 자아를 나타내는 상징체로 설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인물설정의 방법에 유의하여 인물의 존재양상을 살펴 보면, 「지주회시」, 「날개」, 「逢別記」 등은 자아은폐를 통한 역설적 자기인식으로, 그리고 「童骸」, 「窓視記」, 「斷髮」, 「失花」, 「終生記」 등은 동일성 상실과 소외감의 상징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나(그)>라는 인물은 한결같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소설의 주인공이 '剝製된 상태'와 '분열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갈등과 욕망의 양상

1) 작가는 남녀의 대립구조를 통해 작품 속에 단순한 남녀관계로 보이는 표층적 의미와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꿈꾸는 심층적 의미를 지닌 이중구조 속에 개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욕망과 갈등을 은폐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그의 소설에 빈번히 나타나는 남녀의 대립구조는 내적 자아인 <나>가 외적 자아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의 부조화에 갈등하고, 결국 동일성 상실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인공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물의 대립은 비극적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절망적인 상황은 욕망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인공은 종생 결심을 통한 비극적 욕망추구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욕망의 흐름은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분열을 겪는 인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갈등하게 되고 그것이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갈등양상은 주인공이 자아통합의 기대감을 버리고 기피해 버리거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출 통로가 막혀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 등이다.

3. 작가가 추구한 인간상

1) 결말부를 통하여 밝혀낸 현실인식에 따른 인물의 갈등과 욕망의 지향점은 「지주회시」, 「날개」에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한 현실 타개 양상으로, 「斷髮」에서는 현실적 자아의 변모된 모습으로 인해 관심을 돌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童骸」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난 후, 현실 수용과 대응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으로, 「幻視記」에서는 <나>와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의 시각 정정을 통하지 않고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고민하는 양상으로 제시된다. 또, 「逢別記」에서는 일치할 수 없는 <나>와 금홍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계 단절을 결심하는 과정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失花」에서는 현실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비밀로 지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終生記」에서는 왜곡된 현실과 그 확인에서 오는 비극적 기억에서의 탈출 시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로 전이하고 있다.

2) 작가가 인물을 통해 추구한 지향점은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바람직한 차원과 비록,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으로 나타난다.

3) 작가는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비밀스러운 삶 속에 현실의 문제를 은폐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창출했다

4) 이상 소설은 분열되고 '剝製'가 된 현재의 상황에 반발하고 '天才'였던 상황으로의 지향의식을 내보임으로써, 분열된 자아가 조화롭게 통일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작가가 지향한 바람직한 인간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텍스트>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2 소설』, 문학사상사, 1991.

<자료>

문학사상자료연구실편, 『이상소설전작집1·2』, 갑인출판사, 1977.

<단행본>

김용직, 『李箱』, 문학과 지성사, 1981.

김용직·박철휘편,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 1982.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 『이상소설연구』, 문학과비평사, 1988.

김 현, 『르네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 1991.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성바오로출판사, 1992.

송 편, 『소설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윤홍로, 『한국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일지사, 1978.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86.

정명환, 『한국작가와 지성』, 문학과지성사, 1978.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최혜실,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 민지사, 1992.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비평사, 1990.

<논 문>

- 권오룡, 「식민지사회에서의 삶」, 문화과비평, 1987 겨울호.
김용구, 「1930년대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식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진석, 「1930년대 한국심리소설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안성수, 「한국근대단편소설의 플롯연구시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9.
유성하, 「1930년대 한국심리소설의 기법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번역논저>

-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김화영 편역, 「소설이란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C. Brooks · R. P. Warren, 안동립 옮김,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85.
Duane Schultz, 이상우·정종진 역, 「인간성격의 이해」, 중앙적성출판사, 1993.
Michel Zérafia, 이동열 역, 「소설과 사회」, 문화과 지성사, 1983.
N. Frye외, 김인환 역, 「문학의 해석」, 흥성사, 1981.
René Girard, 김윤식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83.
Seymour Chatman,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2.

<ABSTRACT>

The Study of Characters in Novels by Lee Sang¹⁾

Huh, Min Suk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 Soo

This dissertation was written with two aims. One is to propose an methodology of understanding novels of Lee Sang through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m, and the other is to search both for a new way of reading for the whole comprehension of texts and for the nature of characters which the author had pursued. I, therefore, tried to figure out the frame and structure of the conversational relation among characters common in every text, and take it as a basic princip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nature of human being to which the author had given shape in his works.

For this purpose, I chose as texts ten novels of Lee Sang, 'Jijuhwoi-si(지수회시)', 'Nalgae(날개)', 'Bongbyul-gi(逢別記)', 'Dong-hae(童骸)', 'Hwansi-gi(幻視記)', 'Danbal(斷髮)', 'Silhwa(失花)', 'Jongsaeng-gi(終生記)', then, worked on the basis of methodology of structuralism and symbolism.

The overall results of this work are as follows.

1. The way of character-establishment and the aspects of existence in the texts.

1)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novels of Lee Sang, revealed in the study of 'Huup-gwa-sajung(休業과事情)', 'Jido-eui-amsil(地圖의暗室)', are that the author had set up the opposing relation-structure of husband and wife with a link to the dual structure of inner and outer ego. This unique character

1) This dissertation was submitted to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for the degree of Master's in Education in August, 1995.

establishment method, which is found in every novel of Lee Sang, is an evidence that characters in those texts have conversational relationship one another.

2) The major transformation technique in the establishment of characters is that <a wife(a woman)> is set as a symbol of essential ego, the half of dual existential situation which the main character < I (he)> is facing, not as an independent person.

3) The study of the aspects of characters, in terms of character establishment method, showed that 'Jijuhwoi-si(지주회시)', 'Nalgae(날개)', 'Bongbyul-gi(逢別記)' were created as paradoxical self-recognition through self-concealment, and 'Dong-hae(童骸)', 'Hwansi-gi(幻視記)', 'Danbal(斷髮)', 'Silhwa(失花)', 'Jongsaeng-gi(終生記)' as the symbols of the identity loss and isolation.

4) The fact that < I (he)> always fails to adapt to reality hints that his main character is in 'the state of stuffed specimen' and 'of being separated.'

2. The aspects of troubles and desires.

1) The author, by way of opposing structure, had concealed the conflicts of troubles and desires between inner-ego and outer-ego inside the dual structure which has not only superficial meaning but deep meaning dreaming of the integration of separated egos.

2) The opposing structure of man and woman, which is often appearing in his novels, is a device showing the path through which < I >, the inner-ego, suffering troubles of disharmony with reality through its appearance, the outer-ego, finally lose his identity.

3)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a hero to fully accomplish his desire the antagonism between characters has no choice but to lead them to tragedy. Thus, in the sense that desperate situation is meaning the frustration of desires, the hero is, resolved to end his life, going towards the tragic pursuit of desires.

4) The stream of desires in those texts is identifying process. The character suffering division of ego comes to the troubles out of disharmony with reality to which he belongs, and the troubles are represented as the conflicts between inner and outer ego.

5) In that sense, trouble aspects are inner personal troubles resulting from

an extreme situation, where the major character is turning aside from integration of egos or the path to the reality is blocked.

3. The image of human being the author had pursued.

1) The orientation of character with regard to his reality recognition, figured out from epilogue, is presented as of breaking reality with proactive action in 'Jijuhwoi-si(지주회시)', 'Nalgae(날개)', as shrinking from reality in 'Danbal(斷髮)' owing to his changes. In 'Dong-hae(童骸)' it is presented as being torn between reality acceptance and response to reality, as being agonized in the reality which he can't see without correction of his viewpoint in 'Hwansi-gi(幻視記)'. In 'Bongbyul-gi(逢別記)' trouble of determining to discontinue the relation with a woman 'Kumhong' is presented. In 'Silhwa(失花)' it is depicted as tragic situation of not expressing his position that he can't adapt to the reality. In 'Jongsaeng-gi(終生記)' it is transferred to the stage where he comes to think of death as a trial for the escape from tragic memory of distorted reality.

2) The author shows two destinations through characters. One is to realize the reality and manage to seek for a breakthrough in that. The other is to be turning away from the reality, evne though realizing the reality.

3) By placing the problems of reality in the amid of secret personal history by way of transformation techniques the author created an unique human being image, which is willing to challenge the new world, getting out of personal life.

4) Representing orientation towards the situation where he was a genius. novels of Lee Sang are suggesting that human being who is uniting its separated egos in harmony be who the author is in search of.